

연못골

대한예수교장로회 연동교회 연못골 제 619호

2-3



6P/ 연중특별기획(2)

신앙 양극화 Orthopraxy

가족 종교화 Family Christian

24P/ '그때 우리 교회는'(1)

3.1운동 106주년,
연동교회의 독립운동과 평화 정신

42P/  (1)

“김주용 목사에게 봄이 오는 하루에 대해 물었다”

설만한 물가

오래전 봄날

네살짜리 아이와 손잡고 언덕을 올랐을 때

마침 바람이 불었다

그때 아이가 불쑥

“바람은 몇살이야?” 물었다

어쩔 저 어진 것이

바람에도 나이가 있다고 생각했을까

신기해서 한참이나 아이를 바라보다가

나는 궁색한 대조

“바람은 나이가 없단다 잘 날이 없으니까”

대답했던 것인데

아이는 궁금한 것은 참을 수 없다는 듯

“바람은 집이 어디야?” 다시 물었다

“바람은 집이 없단다 떠돌아다니니까”

바람 잘 날 없는 내가

그렇게 대답했던 것인데

길 위에서 아이는 어리둥절하고

몇차례 바람 속에서도

우리는 무사하였다

멀리

강물이 내려다보였다



CONTENTS

2025년 2-3월호

04 이달의 말씀

미움 대신에 사랑을, 다름 대신에 용서를 준비하는 교회 김주용 위임목사

06 연중특별기획-2025년 한국교회 트렌드(2)

신앙 양극화, 가족 종교화

연못골 광장

12 1018예수사랑 겨울 수련회의 기억 강하늘 성도(고등부2학년)

13 2030새벽이슬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갑니다” 오요셉 성도(인도네시아 견습 선교사)

14 4050광장 “착한사람들의 나라, 부르키나파소에 다녀왔습니다” 박재연 집사(낙산구역)

16 살며생각하며 살며 생각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조인찬 공로안수집사(명륜연건구역)

17 부활절을 기다리며 사순절 영성훈련 ‘십계명’

청년광장

18 HI청년부 한겨울 추위에도 힘차고 곳곳했던 하이청년들

주님과 함께하는 삶

20 성경의 향기를 찾아서(2) 평안이 머무는 향기, ‘무화과’ 김환 목사

22 소그룹 탐방(1) 함께 달리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연동자전거

24 그때 우리 교회는(1) 3.1운동 106주년, 연동교회의 독립운동과 평화정신

26 칭찬합니다(14) “게일찬양대를 칭찬합니다!”

27 연동 북하우스(19) 주님은 나의 최고봉

선교

28 선교지에서 온 편지 “MISSION UK” 봄바람 타고 온 bristol 선교 소식 송요한, 이폴잎(송드온) 선교사

30 중국어예배반, 필리핀예배공동체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을 경험한 뜻깊은 날

청소년주일학교 소식

- 32 청소년주일학교
- 40 주니어양상블 겨울수련회
- 41 “책바자회+기부” 두 번째 행사

연못골 사람들

- 42 왓두유쁘리빙(1) “김주용 목사에게 봄이 오는 하루에 대해 물었다”
- 44 HI연동청년, 창업/직업도전기(16) 모션그래픽 디자이너 송하람
- 46 새신자 어게인(19) 연동교회에서 평안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주님의 딸이 되었어요 정승주 성도(연희홍제구역)
- 48 2025년 연동장학생 명단 및 장학생 소감
- 51 신임전도사 인사 바다의 파도가 되어 조창우 전도사(HI 청년부)
신입기자 소개 남다른 신입기자를 소개합니다!
- 52 신임목사 인터뷰 “이현주 목사님, 반갑습니다!”
- 54 이임인사 “많은 사랑 받고 갑니다” 박요한 목사
- 55 지체들
- 67 교회 첫 출석 아기
- 68 새가족 소개
- 69 연동복지재단
- 70 신헌 현황, 목양위원회
- 71 연동컬러링

제목: 무화과나무

크기: 220 X 220mm

재료: 색연필

제작일: 2025년 3월

그림내용: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옷이 무화과나무 잎이었듯 무화과나무는 성경에서 풍요와 축복,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낼 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마24).

(더 많은 내용은 이번 호 ‘연못골’ 20-21p에서-편집자주)

작가: 김정혜 권사(개포수서구역)



미움 대신에 사랑을, 다툼 대신에 용서를 준비하는 교회

어느 사람이 재활용품 가게에 들러 외투 하나를 샀습니다. 집에 오면서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 보석 하나가 있었습니다. 보석을 보는 순간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산 옷이니 보석은 내 것이 아닐까?’ ‘아니지! 원래 주인이 호주머니에 넣고 잊어버렸다가 재활용품 가게에 판 것이니, 보석은 외투의 주인 것이 맞지 않을까?’ 갈등을 하다가 지혜로운 랍비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랍비는 “당신은 옷을 산 것이지 보석을 산 것은 아니니 보석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대답을 하고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대신에 보석을 돌려주러 갈 때에는 당신 혼자 가지 말고 당신의 자녀를 꼭 데리고 가서 보석보다 더 귀한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길 바랍니다.”

보석을 소유했다면, 그 보석만큼의 배를 채우고 눈 앞에 있는 자기 만족을 잠시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외투를 샀다가 보석까지 얻게 된 사람이 그 보석을 돌려줄 때 자녀와 함께 그 재활용품 가게에 찾아가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돌려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그 자녀들은 평생 ‘정직’이라는 보석보다도 더 귀한 가르침을 배웠을 것입니다.

작년 의대증원에 따라 올해 2,000명을 증원해 5,000명이 넘는 의대생을 뽑았습니다. 2,000명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끝내는 제시하지 못한 채, 주먹구구식의 정책으로 인해 기존의 의대생들과 수련의, 전공의들은 거의 대부분이 학교를 떠나거나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큰 문제를 안고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는 의대는 여전히 통증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의 의정갈등 속에서 전국의 10곳 의대에서 수강신청이 단 한 명도 되지 않아 강의실을 텅 빈 상태로 새로운 학기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의정은 돌파구 없는 갈등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재수생은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각 학원은 의대반을 특별하게 운영하고 있고, 기존의 대학생들과 직장인들도 넓어진 의대 입학의 문을 두드려보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교육부는 이제



김주용 위임목사

야 의사협회하고의 대화를 통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의대정원을 논의하겠다고 나서니, 작년 늘어난 의대 정원을 보고 재수와 N수로 뛰어난 학생들은 완전히 난감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교육부도, 의사협회도, 학원가도, 학생과 함께 입시를 준비하는 학부형도, 그리고 학생들도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한국 사회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연일 계속되는 대통령 탄핵 찬반 시위는 자기 입맛에 맞는 스마트폰의 영상만을 바라보며 눈앞에 있는 것에 집착하는 것으로만 보입니다. ‘혹시 지금의 나의 행동과 외침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판단되어질까’를 생각하지 않는 어른들의 도를 넘은 모습들은 대한민국의 ‘내일’이 오지 않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도 밝게 웃는 다음 세대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내일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가 우리 쪽에 동의하지 않느냐?” “왜 거리로 나와 함께하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비난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박쥐’ 같고 ‘회색분자’ 같다고도 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내일을 볼 것입니다. 전쟁 중에도 과실나무를 베어버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너는 어느 편이야?”라는 말씀에 마음이 답답하고 속상하지만, 우리는 눈앞이 아니라 내일과 다음 세대를 보고, 복음과 말씀을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지킬 것입니다. 모든 전쟁이 끝나고 으르렁거리며 싸웠던 원수끼리 함께 모여 같이 식탁을 나눌 수 있는 곳을 누군가가 준비해야 한다면, 지금은 욕을 먹더라도 교회가 그 내일을 준비할 것입니다.

미움 대신에 사랑을, 다툼 대신에 용서를, 분열 대신에 일치를, 의혹 대신에 신앙을, 그릇됨 대신에 진리를, 절망 대신에 희망을, 그리고 어둠 대신에 끝까지 빛을 지켜내는 교회가 되어 내일을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지켜내겠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신앙 양극화 가족 종교화

〈연중특별기획 목차〉

1. 프롤로그, 유반젤리즘
- 2. 신앙 양극화, 가족 종교화**
3. 정신건강, 싱글 사역
4. 20대 청년세대, 고령 교인 사역
5. 평신도 사역, 해외 선교 트렌드
6. 교회의 세속화, 에필로그

신앙 양극화(오소프락시Orthopraxy)

최근 미국에서 주목받는 교회 중에는 편하고 자유로운 예배가 아니라 긴 설교에 성도들의 헌신을 요구하는, '건강하면서 과격한 모델'을 추구하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수의 청중을 끌어들이기보다는 '소수의 영적 온도를 높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취향과 권리를 존중하는 세속주의를 떠나, 전통적 종교의 양식과 가르침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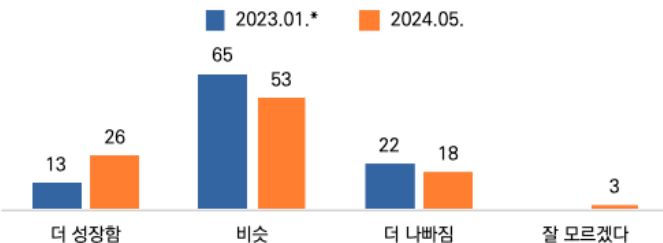
최근의 신앙생활에 관한 조사를 보면 지난 수년간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기독교인이 줄고 기독교인 중에서도 교회를 떠나는 교인들도 상당수 생겨나며 교세의 약화가 일어났지만, 그 현상 속에서도 신앙의 깊이를 추구하고 신앙의 근본을 찾기 위해 영적 경험을 갈망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추세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신앙 양극화라고 부르며, 신앙 양극화에서 긍정적 축을 이루는 신앙의 실천적 측면을 오소프락시라고 합니다.

오소프락시(orthopraxy)란, '정통' 또는 '올바른'을 뜻하는 '오소'(ortho)에 '실천'을 뜻하는 '프락시'(praxy)가 결합된 말로 참된 신앙을 체험하고 나누고 실천하는, 즉 '정통 실천' 또는 '바른 실천'을 의미합니다.

코로나를 기점으로 뚜렷해진 신앙 양극화

신앙의 본질에 대한 갈망은 코로나의 시기가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 트렌드 2025 조사'를 보면, 25.6%의 개신교인이 '코로나19 이전보다 신앙이 깊어진 것 같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반면 '코로나19 이전보다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라고 응답한 이들은 18.2%로 신앙이 깊어졌다는 이들보다 적었습니다. 이는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2023년 조사 결과와 대조적입니다. 2023년 조사에서는 과거 대비 신앙 성장이 나빠졌다는 응답이 많았고, '더 성장했다'는 응답은 13.1%였습니다. 두 조사를 비교하면 '신앙이 더 깊어졌다'는 이들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신앙이 약해졌다는 이들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장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안하고 답답한 상황을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 영적 욕구를 해소하는 이들이 늘어나며, 혼자서 체계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독교 콘텐츠를 통해 신앙에 대한 셀프 솔루션을 찾기 시작하는 이들이 많아진 이유도 있겠습니다. 신앙이 깊어진 이들은 성경 읽기, 묵상, QT 등 경건 시간이 늘어나는 현상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림] 코로나 이전 대비 신앙수준 변화 (교회 출석 기독교인,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 서울:대한기독교서회, 2023.06. (전국 만 19세 이상 기독교인 2,000명, 온라인 조사 2023.01.09.-0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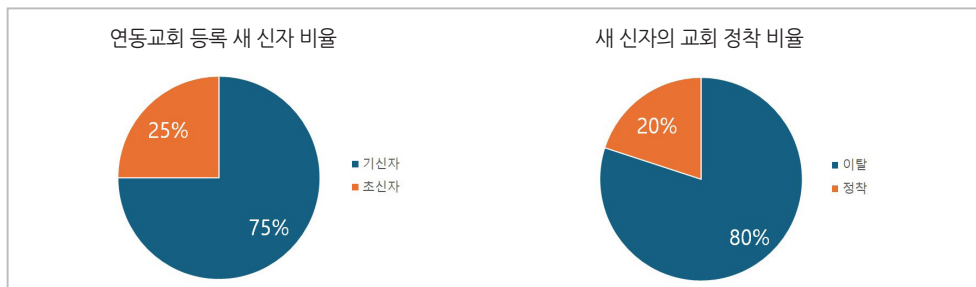
반면,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신앙 성장을 위한 도움을 교회 모임이 아닌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 해결하기 시작하면서 신앙을 위한 직접적 활동인 '성경 공부 모임'이나 '중보기도 모임', '전도 모임' 등 교회 모임이나 봉사에 대한 참여도는 줄어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깊어진 이들 가운데는 코로나 이전보다 '소그룹 모임' 참여도가 매우 늘었다는 답변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는 과정과 소그룹 참여가 중요한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통한 신앙 강화의 필요성과 교회의 역할

신앙의 양극화는 내리막과 오르막의 비탈길과 같아서 내리막길에는 교회와 신앙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오르막길에는 진정한 신앙을 찾는 열망이 있으며, 오르막길로 올라서게 하는 발판이 바로 오소프락시라는 정통 실천입니다. 신앙의 깊이와 진정성을 실제적 체험과 공동체적 사귄, 이웃섬김 등의 실천을 통해 찾는 것입니다.

연동교회 역시 코로나를 기점으로 교회를 떠난 신자와 코로나 이후 신앙에 대한 갈망으로 인해 더 열심히 나오는 신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럼, 연동교회는 신앙 양극화에서 오르막길과 내리막길 중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체 교인의 수적 변화로는 그 양상을 가늠할 수 없어서 새가족부(부장 심현숙 장로)의 협조 아래 새 신자로 등록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알아본 주요 내용을 아래에 공유해봅니다.

연동교회의 새 신자 유입은 코로나를 기점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교회를 찾게 되는 이유로는 대부분 기존에 신앙적 배경과 성향이 있는 성도들이 두세 번 정도 교회 참석하며 교회의 분위기나 정보를 확인 후, 주변의 권유와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등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연동교회에 등록하는 새가족부의 새 신자 비율을 보면 2024년을 기준으로 기존 초신자가 25%, 타 교회에 다녔던 기신자가 75%로, 신앙을 가지고 있던 분들의 등록이 많았습니다. 기신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코로나 이후 신앙에 대해 갈급함을 느끼며, 믿음의 깊이를 더 높이고자 하는 오르막 행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새가족부에 새 신자로 등록 후 이탈하지 않고 적응하는 신도의 비율은 2024년 기준 20% 정도로 그 수가 크지 않았습니다. 이는 신앙에 대한 열망으로 찾아온 신도들이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 그리고 꾸준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현재 연동교회는 새가족부에서 새 신자를 구역, 자치기관, 입교, 세례, 일대일 제자 훈련팀, 데바레카 통독팀과 연계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새 신자들이 잘 정착하고 계시는지 1년 동안 매 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가족부에 등록하는 신자들은 새가족 양육을 마치면 교회에 적응이 힘들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와 의견을 좀 더 경청함과 동시에 새가족부, 구역, 자치기관의 적극적 관리와 정착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연동교회 성도들의 절대적인 격려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그러한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연동교회 성도들이 신앙에 대한 열망이 높고, 신앙생활의 간절함이 있는 오소프락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새 신자들은 연동교회가 복음의 기쁨과 은혜 속에서 따뜻함을 느끼고 나누는 복된 신앙생활의 안식처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오소프락시를 향한 신앙성장을 위해 새 신자들을 그들의 바람대로 품어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신앙 양극화가 던져준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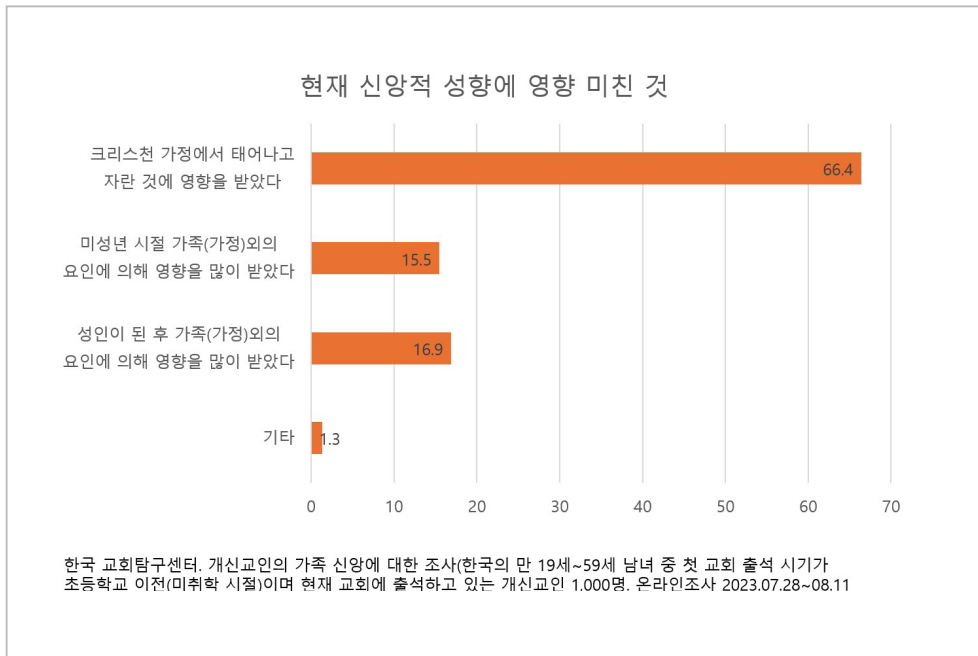
1. 신앙의 내리막을 걷는 성도들이 오르막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도울 방법
2. 신앙의 깊이와 진정성을 추구하는 새 신자들의 열망에 부응할 방안

가족 종교화(패밀리 크리스천Family Christi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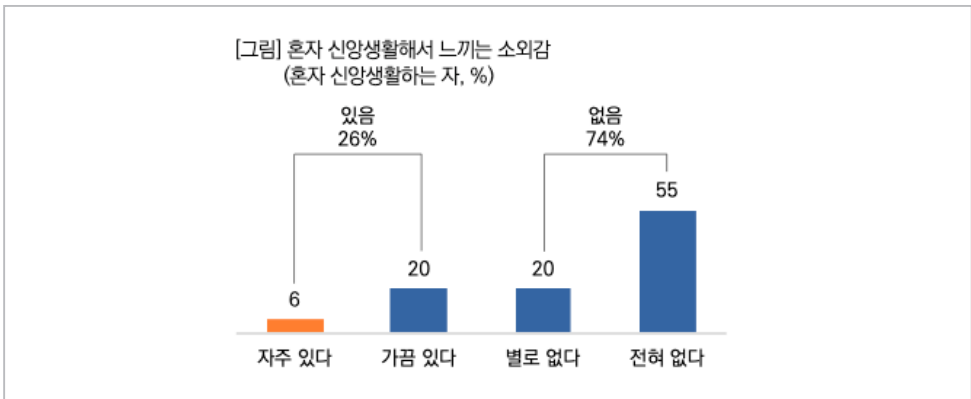
한국은 개인의 신앙 선택에 있어서 가족의 영향을 많이 받는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보다 가족을 중시해온 문화 관습에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가족 중심으로 종교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족은 종교적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가장 강력한 단위일 뿐 아니라 하나의 원초적인 종교 집단의 근본 단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5”에 의하면 한국 교회의 가족 종교화 비율은 타 종교보다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개신교인이 배우자와 종교가 일치하는 비율은 71.6%로 가톨릭(59.3%), 불교(58.3%)보다 높고, 자녀와의 일치는 67.2%로 가톨릭(57.6%), 불교(35.1%)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기독교 청소년의 경우 모태신앙이 60.4%이고, 초등학교 입학 전 교회를 나온 비율은 79.9%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렇듯 가족 종교화(Family Christian)란 가족이 일종의 종교 공동체로서 작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 종교화는 자녀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환경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어려서부터 본인의 의지보다 부모의 의지로 가진 신앙이 성인이 되어서는 오히려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가족 종교화의 빛과 어둠

사람들은 가족처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종교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부모의 종교 신념과 실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자녀들이 부모의 종교로 개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 및 신앙 성향이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에 영향을 깊게 받았다고 말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고 돈독하고 화목한 가족 관계를 장려하고 있으며, 한국 교회 역시 가족 중심의 신앙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심 신앙생활의 장점을 보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데 '부모님의 기도'나 '부모님의 신앙'이 본이 되며, 신앙의 위기 때 부모님 때문에 신앙을 지켰다는 긍정적 응답이 있었습니다. 반면 어릴 때부터 부모의 영향으로 교회를 다니면 이렇다 할 신앙적 변화를 경험하기가 어렵고 그로 인해 신앙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든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누구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대로 교회 참석이 자유로워지는 고등학생 이상의 성인이 되면 교회를 옮기거나 떠나는 단점도 있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5”에 따르면 현재 교회 출석자 중 가족 없이 혼자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무려 40.3%에 달하고 있으며, 혼자 신앙 생활하는 교인 4명 중 1명은 교회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혼자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의 비율이 낮지 않은데 교회 안에서조차 가족을 중심으로 혈연만 강조한다면 비기독교 가족에 속한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기독교 가정에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쏟는 사이, 비기독교 가정에서 혼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점차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되고 교회를 떠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3040세대 크리스천 부모의 고민과 해결방안

연동교회 역시 가족 종교화의 비율이 높으며, 그에 따라 현재 3040세대 부모들이 5060세대가 되었을 때 성인이 된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 종교화 상황에 대한 부모의 고민을 이해하고 교회가 도울 수 있도록 유아와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한 내용을 아래에 실었습니다.

만 5세 자녀를 둔 30대 A 부모

자녀가 부모와 함께 교회에 나오게 될 시기를 고등학생 때까지로 생각하고 있으며,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중요시하는 신앙교육을 위해 주일예배, 교회 생활, 가정예배, QT에 힘쓰고 있으며, 자녀의 타 교회 등록은 인정할 수 있으나 탈종교에 대한 인정에는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자녀가

크리스천으로 자라는 데 있어서 세속적 대화나 미디어의 영향에 대해 고민하며, 좀 더 단단한 신앙의 성장을 위해 자녀가 속해 있는 기관에서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실천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중학생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40대 B 부모

자녀가 교회에 함께 나오게 될 최종 시기를 고등학교까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한 만큼 아이와 신앙의 성장을 함께한 부모로서, 부모의 신앙생활이 자녀에게 분명 ‘본보기’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지만(부모의 삶과 성품, 훈육은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의 가치관과 방향, 세계관에 영향을 준다) 결국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결정될 부분이기때 그 과정에서 부모의 기도와 도움, 인내와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중요시하는 신앙생활은 주일예배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축복기도입니다. 탈종교와 타 교회 등록 모두 인정하기 어렵지만, 자녀가 여러 가지 문제나 어려움에 있다면 타 교회 등록은 인정할 것입니다. 자녀를 크리스천으로 키우는 데 있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의 부족과 부모가 주일에만 반짝 교회 가고 봉사하는 선데이크리스천의 모습을 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 각 모임에서 자녀를 이미 성장시킨 선배들에게 신앙교육 및 사춘기의 소통 방법 등에 대한 나눔이 도움이 되었으며, 교회에 바라는 점으로는 자녀를 위한 가정예배 책자나 부모 교육 프로그램(예 :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성경 일독, 제자 훈련, QT 나눔, 가정예배 안에서 아빠와 엄마의 역할 등에 대한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세대는 다르지만 두 가정의 공통 예에서 보듯 자녀들이 고등학생 이상의 성인이 되면 교회에 함께 나오지 않게 될 거라는 예상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되기까지 크리스천 가정에서 아이가 스스로 신앙을 갖길 바라고 있으며, 크리스천 부모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교회가 제시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동교회 3040세대들도 가족 종교화가 가진 명암을 고스란히 안고 있기에 자녀 스스로 신앙을 길러낼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가 제시해줄 수 있는 각 시기별 종교 성장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가족의 모습은 그 구성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고 나 홀로 교회에 출석하는 비율도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2대, 3대 혈연 중심의 가족 종교화를 떠나서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인정과 일인 가정에 대한 흡수 또한 교회가 변화해야 할 과제이며 이를 위한 좀 더 적극적 방안과 실천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가족 종교화가 던져준 과제

1.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으로 정착하도록 도움 방안
2.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녀 시기별 신앙교육 프로그램
3. 가족 종교화 현상에서 다양한 가족 형태의 신앙인이 교회에 흡수될 방안

겨울 수련회의 기억



강하늘 성도
(고등부 2학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고등부 회장을 맡게 된 고등부 2학년 강하늘입니다. 아직 회장으로서는 활동한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제가 기억하는 고등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등부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수련회'입니다. 고등부에서의 수련회는 학교, 친구들, 세상 속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잠시 잊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련회에서는 고등부 친구들이 평소 학교에서 하지 못했던 신앙 이야기를 나누거나, 매일 책상에 앉아 있던 친구들이 마당에서 마음껏 뛰어놀기도 합니다. 먹고 싶었던 야식을 저녁 늦게까지 먹으며, 언니, 오빠, 형, 동생, 친구들과 밤을 새고 해가 뜰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지요.

'피난처'라고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저희는 하나님 안에서 한 점의 불안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매일 밤 모두가 모여 드리던 기도회 시간이었습니니다. 저희는 기도회 시간마다 찬양을 부르며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이야기를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렸습니다. 찬양을 크게 부르며 기도하는 친구를 다독이고,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며 기도하는 친구를 위로하며,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갔습니다.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함께 울고, 친구들의 손을 한 명 한 명 잡아주며 진심으로 위로해주셨던 선생님들을 보며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도가 끝나면 다 함께 신나는 찬양에 맞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학년과 성별, 학생과 선생님 구분 없이, 다윗이 춤을 추듯 저희는 몇 시간 동안 찬양을 이어갔습니다. 기도회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지만 신기하게도 찬양을 다시 시작하면서 피로는 사라졌습니다. 고등부 기도회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야 하는데도 고등부 학생들은 모두 찬양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강화수양관에서 함께 수련회를 하고 있던 중등부 예배실로 찾아가 중등부 동생들과 함께 다시 한 번 신나게 찬양을 했고 모두가 함께 하니 정말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고등부와 중등부가 함께 찬양했던 2025년 겨울 수련회는 세상을 살아가며 지치고 힘이 들 때마다 다시 힘을 낼 수 있을 만큼 저에게 소중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제게 이 기억들이 소중한 만큼, 고등부 친구들도 좋은 기억들을 더 많이 쌓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 언제나 고군분투하는 고등부 친구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갑니다”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에 온 지 어느덧 한 달 반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저의 주된 사역은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사랑의 공동체 선교센터 기관에 있는 현지 학생들 및 현지 사역자 분들과 함께 생활하며, 매주 평일 새벽예배, 목요기도회, 한인 금요철야기도회, 주일예배 설교 및 찬양 인도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2주에 한 번씩은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현지 교회에 다니는 청소년 연합 집회 사역과 현지 목회자 세미나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은 이곳 더운 날씨와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었지만, 지금은 현지인들과 함께 잘 어울려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요셉 성도
(인도네시아
견습 선교사)

저는 무슬림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곳에서 생활하면서(무슬림 88%, 기독교 7%) 그동안 한국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저의 신앙생활을 참 많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현지 목회자 세미나에 오셨던 한 장로님의 간증을 듣고 많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아주 신실한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나, 하루에 7번 정도 무슬림 신에게 기도할 정도로 신앙심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속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교회에 나가길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는 예수님을 가족들에게 전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사랑하는 아내에게마저 버림을 받고 오랜 시간 방황하다 이곳 칼리만탄 내륙에 정착해 홀로 신앙생활 하며 살고 있다고 하십니다.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기쁨으로 믿는 장로님의 모습은 저의 식었던 신앙생활에 뜨거운 불씨를 던지며 다시 활활 타오르게 했습니다. 장로님께서는 비록 가족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복이고, 행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의 열매를 쫓는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열매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저와 우리 연동교회 성도님들도 이분의 간증처럼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곳 인도네시아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며 매일 반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올해 견습 선교 과정을 마치고 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잘 붙들고 감당해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섬기고, 이곳에서 보여주신 모든 경험과 나눔들을 많은 분들에게 빠짐없이 전하고 싶습니다. 이곳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칠 때까지 저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사랑의 공동체를 섬기시는 김태환 선교사님과 주애니 선교사님 내외분을 위하여 함께 중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착한사람들의 나라, 부르키나파소에 다녀왔습니다”

박재연 집사(낙산구역)



저는 세계선교위원회에서 부르키나파소 지역의 박소현 선교사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 아프리카 선교의 꿈을 꾸던 저는 그 탓인지 지난 2021년 선교사님께서 선교보고를 위해 우리교회에 처음 방문해 주셨을 때 부르키나파소에 한 번 와서 그 지역을 보고, 느끼고 함께해주는 것이 선교사님께 더 큰 은혜가 된다는 말씀을 늘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올해 구정 연휴 때 드디어 부르키나파소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부르키나파소에 가려면 서울에서 에티오피아까지 약 12시간을 비행한 뒤 다시 비행기를 갈아타고 6시간을 비행해야 수도인 '와가두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선교사님의 사역지는 자동차로 6시간을 더 가야 나오는 구시가지 '보보'에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이슬람문화권 아이들의 복음화를 위해 애쓰며, 특히 학교 사역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부흥하여 아이들이 많았고, 협동으로 섬겨주시는 현지 목사님들과 여러 동역자분들은 선교사님 가족과 온전히 신뢰하며 가족처럼 지내시는 모습을 보여 선교사님께서 부르키나파소를 '우리나라'라고 하시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초등학교는 우리나라 1960~70년대 모습을 하고 있지만 매우 깨끗했고, 아이들은 모두 예의바르고, 사진 찍히는 걸 아주 좋아했습니다. 선교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의 후원으로 판 연동교회 우물도 방문했는데, 척박한 그 땅에 우물이 생기면서 그 지역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어 현지 목사님께서도 많이 기뻐하시며 반가워해 주시고,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여름 한낮에 사람들을 피해 물을 길러 나올 수밖에 없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러 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땅에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기 위해 선교사님을 보내주신 거 같았고, 복음이 그 땅에 뿌리내리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많은 걸림돌이 먼저 보입니다. 이번 아프리카를 방문하면서도 겁 없이 가겠다고 했지만, 물질과 시간적 비용을 계산하며 불평할 때에 나의 겨자씨만한 믿음에도 물질과 시간을 넘어서 큰 은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여정 가운데 탄자니아로 선교를 가는 다른 교회 단기선교팀을 만나게

해주셨고, 수도물이 제때 나오지 않아 아침마다 물 나오는 집을 확인하는 선교사님들의 녹록치 않은 삶과 마음대로 식료품과 사역에 필요한 물건을 구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웃으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의 열정을 통해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믿음의 본을 배웠습니다,

이번 방문을 위해 기도로 중보해주신 목사님들과, 유년부 선생님들, 세계선교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많은 짐을 싸는 데 함께 애써주신 직장 동료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는 내년에 한 번 더 부르키나파소를 다녀올 계획을 합니다. 혹시라도 동참하고 싶으신 성도님께서도 말씀해주시고,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갈 때 선교사님께 더 많은 식량과 필요를 공급해드릴 수 있음을 기억해주시고 함께해주시길 기도합니다.



박소현 선교사가 섬기는 교회와 예배시간



부르키나파소의 연동교회 기증 우물



박소현 선교사가 운영하는 학교와 학생들



부르키나파소 전경(물건 파는 아이들)

살며 생각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조인찬 공로안수집사
(명륜연구역)

바람을 가르며 창공을 향해 힘차게 날리는 드라이버 샷은 호기와 패기에 넘쳐던 젊음이었으며 깊은 병격와 헤어날 수 없는 해저드는 시각장애로 인한 좌절과 절망 그리고 인간적 배신으로 아파했던 고난이었다. 그러나 홀 컵을 훔으며 들어가는 마지막 롱퍼팅은 육신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보게 된 극복이었다. 이것이 나의 골프인생이다. 2016년 브리티시 오픈우승으로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고 기자 회견에서 밝힌 소감이다.

1988년 오른쪽 눈 망막에 발병한 황반변성질환으로 6개월 만에 시력을 잃고 12년 후 2000년 2월에 남은 왼쪽 눈에도 황반변성이 발병하여 미국, 모스크바 등 여러 곳에 치료 다녔으나 결국 2005년 시각장애 1급 장애 판정을 받고 중도 장애인들이 모두 겪는 부정, 타협, 분노, 좌절 마지막 수용의 단계적 과정을 거치며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삶을 살던 중 가데스 바네야에서 모세의 명을 받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갈렙이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면 능히 우리가 그곳으로 갈 수 있다는 확신을 나도 가지고 2008년 세계시각장애인 골프 호주 오픈에서 기적 같은 우승을 하였다. 그 후 작년 2024년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단체인 북미팀과 세계연합팀 대결인 비전컵 우승으로 통산 8승이라는 세계 시각 장애인 골프 대회에서 큰 성적을 올렸다.

비장애인시절, 아침에 잠금(그때는 시각장애인을 그렇게 불렀음)을 보면 재수 없다 하였던 내가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장애인으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준 아내(유영출 공로권사)에게 감사하다.

이제 허락 하신다면 체력이 되는 날까지 나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장애인들을 위하여 특히 중도장애인들을 위하여 하나님 복음 전하며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1. 경건한 습관 발견하기

- 하루 10분 묵상한 말씀으로 기도하기

2. 광야에서 발견하는 감사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일들 기록하기

3. 매일을 안식일처럼

- 스마트폰이 아닌 하나님께 마음 두기

4. 재촉하지 않기

- 조급한 마음과 행동 내려놓기

5. 침묵의 시간 준비하기

- 다른 사람을 향한 잔소리 줄이기

6. 하나님 보다 앞서지 않기

-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

7. 하나님 나라 바라보기

-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8. 참된 경건의 자리에 서기

- 가난한 자들을 위한 섬김 실천하기

9. 하나님의 성전 사모하기

- 교회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 먼저 줍기

10. 가벼운 몸과 마음 만들기

- 과식하지 않기

한겨울 추위에도 힘차고 곳곳했던 하이청년들

I 신·구 임원 리트릿



1월 24일(금) 가나의 집 영아부실에 신·구 임원들이 모여 리트릿을 가졌다. 신·구 임원들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따뜻한 교제를 나누었고, 인수인계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또한, 다양한 레크리에이션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서로를 더욱 깊이 알아가고 친목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이번 리트릿을 통해 신·구 임원들이 마음으로 협력하며 앞으로의 사역을 기대하는 시간이 되었다.

I 새내기 환영회



1월 26일(주일) 가나의 집 열림홀에서 하이청년부로 올라온 스무살 새내기들을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원단과 새내기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풍성한 교제를 나누었고,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을 통해서 친밀해지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앞으로 함께할 공동체의 따뜻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시간이었다.

I 러브릿지 온(溫) 도시락 봉사(1/25, 2/15)



교회 가까이 있는 창신동 이웃들에게 따스함을 전하는 도시락 봉사 러브릿지 온(溫)이 1월 25일(토), 2월 15일(토)에 진행되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청년부원들은 이웃들에게 사랑과 온기를 전하기 위해 힘썼다. 작은 도시락 하나하나에 따뜻한 마음을 담아 전하며 나눔의 기쁨을 되새기고 섬김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 올해도 러브릿지 온(溫) 사역이 계속해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란다.

I 금요기도회(2/7, 14, 3/14)



금요기도회가 다시 회복되어 2월 7일, 14일, 그리고 3월 14일 가나의 집 아가페홀에서 진행되었다. 한 달에 두 번 금요일 저녁, 청년부가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이 예배를 통해 각자의 삶 속에서 예배를 놓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한다. 앞으로도 이 기도회를 통해 더욱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청년부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 단단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란다.

| 겨울수련회

2월 21일(금)~ 22일(토) “우리의 힘, 거룩”(벤전1:15)을 주제로 강화수양관에서 비청년부 겨울수련회를 열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거룩을 찾고 또 고민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영광 목사님(공군 군목)의 특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으며 특히 기도회가 새벽까지 이어져 하나님을 향한 청년들의 기도 소리가 울려 퍼졌다. 청년부가 말씀과 기도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삶 속에서도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그리고 청년부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랑,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신임원단과 위임목사와의 만남



3월 16일(주일) 신임원단과 김주용 위임목사가 만나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위임목사와의 식탁 교제를 통해 청년부의 앞으로의 비전과 방향성, 그리고 올해의 다양한 행사들에 대해 활발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이 만남을 통해 신임원단은 앞으로의 사역에 대한 기대와 책임감을 더욱 깊이 새길 수 있었고, 청년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다.

| 풋살 친목



3월 16일(주일) 서경대학교 풋살파크에 모여 풋살로 친교하며 활기찬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들이 함께 땀을 흘리며 운동으로 하나 되는 기쁨을 누렸다. 이번 풋살 교제를 통해 서로를 더욱 알아가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앞으로도 청년부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더욱 강건하게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

평안이 머무는 향기, ‘무화과’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생명이 움트는 봄이 찾아왔다. 이번 달에는 봄의 기운을 담아 무화과와 무화과나무를 주제로 삼았다. 무화과의 제철은 여름이지만, 봄은 열매를 맺기 위한 준비의 계절이다. 새순이 돋고 가지가 자라는 이 시기에, 싱그러운 무화과를 떠올려보는 것도 봄을 더 깊이 느끼는 방법이 될 것이다.

무화과는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의미 깊은 나무다. 에덴동산에서도 언급되며, 생명나무와 함께 성경에 처음부터 등장한다. 또한, 무화과나무는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 그리고 신앙의 상태를 비추는 상징으로 자주 그려진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왕상 4:25)

무화과나무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을 상징한다. 솔로몬 시대에 백성들이 그 그늘 아래에서 안식을 누렸듯,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언제나 안전하고 충만하다.

“옛적에 내가…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 같이 하였거늘”(호 9:10a)

무화과의 첫 열매는 이스라엘의 순수한 신앙과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상징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셨음을 나타낸다.



김한 목사

무화과 향수를 뿌릴 때, 그 향기를 맡으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기쁨을 떠올려보면 어떨까?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안식을 누렸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고 충만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신앙의 처음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향기가 퍼지듯,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기를 바라며, 그러한 감성을 담은 무화과 향수를 소개해 본다.

무화과 향수로 유명한 딥**의 필로시코스는 그리스어로 ‘무화과나무의 친구’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 향수는 무화과 열매, 잎, 나무의 향을 모두 담아내어 자연스럽게 신선한 무화과 향을 느끼게 한다. 탑 노트에는 무화과 잎과 블랙커런트, 미들 노트에는 무화과 열매, 베이스 노트에는 시더우드와 우유 향이 어우러져 따뜻하고 부드러운 잔향을 느낄 수 있다.

아*** 프리베 휘기에 에덴은 무화과 잎과 나무의 향을 담아내고 있다. 그린 시트러스 노트와 우디 노트가 어우러져 신선하고 우아한 무화과 향을 담아낸다. 탑 노트에는 만다린과 베르가못, 미들 노트에는 무화과 잎과 차, 베이스 노트에는 우디와 엠버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아쿠아 * ***의 피코 디 아말피는 상큼한 자몽과 레몬, 무화과꽃 추출물이 어우러져 상쾌하면서도 부드러운 무화과 향을 느낄 수 있다. 탑 노트에는 레몬, 미들 노트에는 무화과 꽃과 핑크페퍼, 베이스 노트에는 시더우드와 머스크가 어우러져 신선한 향을 느끼게 한다.

라** 퍼퐁머의 프리미에 휘기에는 무화과나무 전체의 향을 표현한 향수이다. 그린 노트와 우유 향이 어우러져서 따뜻한 무화과 향을 선사한다. 탑 노트에는 무화과 잎과 아몬드 밀크, 미들 노트에는 무화과와 샌달우드, 베이스 노트에는 코코넛과 드라이 프루츠 향이 조화를 이루어 풍부하고 따뜻한 잔향을 남긴다.

참고로 필로시코스과 프리미에 휘기에는 같은 조향사가 만든 향수이기도 하다. 둘 다 조향사 올리비아 지아코베티의 무화과 향수로, 비슷하면서도 다른 무화과 향기의 매력을 느껴볼 수 있다. 점점 따뜻해지는 계절, 무화과 향이 은은하게 스며들 듯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은혜로 채워지기를 바란다. 향기가 머물며 깊어지듯,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자라나기를 기대해 본다.



함께 달리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 - 연동자전거



푸른 하늘 아래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한강을 따라 달리는 기쁨! 연동교회 자전거 동아리인 '연동자전거'는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신앙과 교제의 소그룹 모임이다. 단순히 자전거를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누리며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성도 간의 따뜻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된다.





라이딩 주요 코스는 아름다운 한강 자전거 도로이다. 강변을 따라 힘차게 페달을 밟다 보면, 삶의 무게는 가벼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가깝게 느껴진다. 라이딩 후에는 맛집을 전전하며 따뜻한 나눔의 시간도 가진다. 함께 땀 흘린 뒤에 간식을 먹으며 삶의 이야기와 신앙의 고백을 나누는 시간도 즐겁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하나님 안에서 한가족처럼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간다.



[깜작 퀴즈]

잠실대교 위 누구일까요?

[힌트]

뒤에 포니 보이시죠?

정답을 '연못골'에 보내주시면
맞히시는 분께 선물 드립니다.

자전거를 좋아하는 분,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은 분, 또는 단순히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 건강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 모두 환영한다!

“함께 페달을 밟으며 신앙과 우정을 쌓아가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달려요!”

/ 박동진 기자(연동자전거 회원)

▶가입문의 : 김병웅 안수집사, 김이순 장로, 이정민 장로 외 자전거 좀 탈 것 같은 연동교인

*‘연못골’에서는 ‘연동자전거’를 시작으로 교회 내 소그룹들을 매회 탐방, 취재하여 실을 예정입니다. 교인 여러분의 소그룹 참여와 각양각색의 소그룹 개설을 기대합니다.

3.1운동 106주년, 연동교회의 독립운동과 평화 정신



올해는 일제 강점에 대해 독립을 외치며 시작된 3.1운동이 일어난 지 10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3.1운동은 민족의 자결권을 주장하고, 일제 강점에서 벗어나 독립된 대한민국을 건설하려는 민족의 의지를 보여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정신은 오늘날에도 자유, 평화, 정의를 향한 끊임없는 투쟁과 노력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특히, 3.1운동은 한국 기독교에게 민족 독립과 신앙의 자유를 위한 중요한 역사적 경험으로,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하며 교회가 만세운동의 거점 역할을 했습니다. 33인의 민족대표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으며, 전국적으로 80여 개의 지역에서 기독교가 만세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통해 배운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바탕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하였고, 이 운동은 한국교회에 민족의 자주독립과 민주정신을 회복하고, 인류공영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연동교회는 민족 독립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독교 정신에 기반한 비폭력 평화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3.1운동을 통해 민족의 아픔 속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헌신과 용기를 돌아보며, 한국교회가 계승해야 할 3.1 정신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연동교회, 독립운동 거점으로서의 역사

연동교회는 130여 년 넘게 서울 종로구에서 복음의 향기를 묵묵히 전파해온 교회로, 특히 3.1운동 당시 독립운동의 중요한 거점 역할을 했습니다. 연동교회는 단순한 예배당을 넘어, 민족 독립을 위한 중요한 운동과 활동들이 일어난 역사적인 장소로, 많은 애국지사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나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특히, 연동교회 초대 목사인 게일 목사의 공헌은 독립운동과 민족의 자유를 위한 믿음의 중심으로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게일 목사는 1894년 연동교회 첫 예배당을 세운 후, 한국의 독립운동가들과 깊은 연대를 맺으며 그들에게 위로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활동은 독립운동가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며, 많은 이들이 연동교회를 통해 신앙과 독립운동을 동시에 이어갔습니다.

연동교회와 독립운동의 연결 고리

연동교회는 3.1운동 당시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정재용 전도사를 비롯해,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한 곳입니다. 특히, 정재용 전도사는 당시 연동교회 성도로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으며, 대한애국부인회를 조직해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김마리아와 그 동지들 또한 연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연동교회 성도들은 일제강점기 내내 독립운동과 함께 민족의 자유를 위한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월남 이상재,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등도 연동교회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연동교회는 기독교의 신앙을 바탕으로 비폭력적인 평화 운동을 전개하며, 일본의 침략 실상을 폭로하고 독립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애국지사들의 집합소 '연동교회'

연동교회는 특히 많은 애국지사들이 모여 신앙과 독립운동을 병행한 장소로 유명합니다. 그 중 대표적인 인물로 월남 이상재가 있습니다. 그는 독립협회 사건으로 투옥됐으나, 감옥에서 게일 목사의 전도를 받고 출옥과 동시에 연동교회에서 집단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후 장로에 피택되었으나 장로직을 마다하고, 평신도로서 나라와 겨레를 위해 봉사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연동교회 성도들은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와 평화를 위한 여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갔습니다.

해방 후에도 연동교회는 군사독재 타도를 외치며 사회 봉사 활동에 앞장섰습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세계에 알린 첫 번째 교회로서, 시대의 증언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교회는 복지재단을 만들어 지역 사회 봉사 활동을 강화하고, 평신도들의 역량을 집중시켰습니다. 연동교회의 역사는 단지 과거의 사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오늘날에도 다음 세대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반드시 이어가야 할 정신적 유산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교회의 역할

현재 한국 사회는 극심한 정치적 대립과 경제적 불평등, 세대 간 단절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교회는

다시금 3.1운동 정신을 되새기며, 분열된 사회 속에서 진정한 화해와 연합을 이끌어내는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서도 정의 실현을 위해 과감히 목소리를 내고, 갈등을 조정하는 중재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 속에서 사회적 무관심과 냉대로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찾아내어 그들을 위로하고 살피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지역 사회에 더 깊이 들어가 함께 호흡하고, 계층을 초월한 연대와 협력을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지역 내 여러 교회들과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교인과 지역,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이 한데 어우러질 수 있는 공동체 형성을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3.1운동 106주년을 맞아 연동교회의 선배이자 독립운동가들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가 다시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탕으로 이 사회를 화합시키고 정의를 세우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나라와 사회를 더욱 평화롭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앞장서기를 기대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며, 복음의 힘으로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모으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회복하고, 위로와 회복을 바라는 세상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 임재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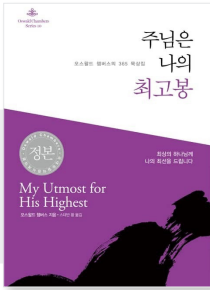
“게일찬양대를 칭찬합니다!”



게일찬양대는 연습실에 종이컵이 없습니다. 지난 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의 유예 기간을 가진 후 올 1월 첫 주부터 찬양대실에서 종이컵을 없앴습니다. 대원들은 처음에는 익숙지 않아 텀블러 챙기는 것을 깜박 잊고 올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당연하게 텀블러나 개인 컵으로 물과 차를 마십니다.

이를 위해 지난 12월에는 집에 남아 있는 텀블러를 가지고 와서 대원들끼리 나눔을 하기도 했습니다. 게일찬양대 지휘자인 이성은 목사님도 한 손에 쥐어지는 작은 텀블러를 이때 얻게 돼 “가지고 다니려면 작은 게 필요했는데 득템했다”고 좋아하시며 여객 아끼는 텀블러로 들고 다니십니다. 만약을 위해 여분으로 하나 더 들고 다니는 대원도 있어서 감췌한 대원을 위해 한 주 대여(?)해 주는 기특한 일들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올해 교회에서는 “2025년 녹색교회 지키기 십계명”을 교인들 실천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실천 계명이 “교회 내 일회용기 사용 줄이기(공용 다화용컵 세척 사용하기)”입니다(3월 9일자 주보 참고). 게일찬양대는 이미 작년 말부터 자발적으로 일회용기 줄이기를 실천하다가 올해부터는 아예 일회용기 사용을 중지했으니 교회 내 어느 기관보다 실천에 있어 앞서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연못골’에서 교회 내 다화용기 사용 기관을 탐문해본 결과 게일찬양대 외 어느 기관도 100% 다화용기만 사용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게일찬양대에서 일회용기 없애기에 앞장 서서 수고한 송영옥 대장은 대원들이 “개인 컵 사용에 적극 협조, 참여해주어 무척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실천은 늘 어려운 법입니다. 오랫동안 익숙한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 들이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편을 마다 않고 자발적으로 지구의 안녕과 녹색교회를 향해 발걸음을 떼고 있는 게일찬양대와 그 실천자인 대원들을 크게 칭찬하며, 다른 기관들에게도 도전하기를 권해봅니다. / 박현미 편집장



오스왈드 챔버스의 365일 묵상집

주님은 나의 최고봉(My Utmost for His Highest)

오스왈드 챔버스 지음 · 스데반 황 옮김 / 토기장이 / 2015(개정판)

저자 오스왈드 챔버스는 1874년 스코틀랜드 애버딘에서 태어났다. 10대에 찰스 스펔전 목사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것으로 알려지며 더넛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한 후 목사가 되어 1906년~1910년까지 미국과 영국, 일본 등지에서 성경을 가르쳤다. 1911년 런던 클렘프에 성경훈련대학을 세우고 강의를 했으며, 1915년 YMCA 소속 목사로 이집트 자이툰에 주둔하던 호주와 뉴질랜드 군대를 위해 목회 사역을 하다가 1917년 4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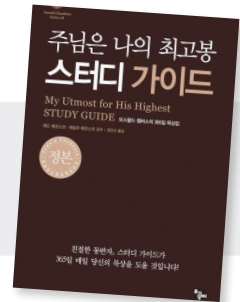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은 365일 매일 묵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챔버스가 신학교 경건회, 부대 막사 등에서 전한 설교를 모은 것(아내 비디 챔버스 발간)으로, 1~12월까지 12개의 큰 주제와 365개의 소제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일의 주제 성구는 매우 짧지만 깊은 영적 통찰을 담고 있다. 각 묵상은 성경구절과 함께 우리의 신앙과 삶의 본질을 돌아보게 하며, 거룩, 순종, 사랑 등 그리스천 삶의 원칙을 강조한다.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리라.’ 하나님 앞에서 오직 이 한 가지만을 생각하며, 온전히 그분을 위해, 오직 그분을 위해 살기로 단호하게 결심하라 전한다. 이 책의 1년 계획에 맞춰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메시지를 새롭게 깨닫게 될 것이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스터디 가이드

(My Utmost for His Highest STUDY GUIDE)

제드 매킨코·세실리 매킨코 공저 · 장인식 옮김 / 토기장이 / 2015



챔버스의 묵상집을 더 깊은 말씀 묵상과 이해, 삶의 적용이 더욱 쉽게 되도록 돕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 스터디 가이드」를 함께 추천한다. 이 책은 챔버스에 대한 전기적 사실 배경과 성경적 문맥, 본문의 메시지, 적용 문제를 통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내용과 성경 구절, 일상의 문제와 연결·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저자 매킨코 부부가 오스왈드 챔버스의 방대한 자료들을 참고하여 연구하면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독자들이 끝까지 묵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집필한 것으로 스터디 가이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며 세웠던 성경 읽기와 묵상 계획이 흐지부지되었다면 새싹이 나기 전, 이 추천도서와 함께 다시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 / 고현수 기자

“MISSION UK” 봄바람 타고 온 bristol 선교 소식

샬롬! 브리스톨에서 문안드립니다. 긴 겨울을 지나 봄의 시작과 함께 따스한 햇살과 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더욱 깊이 누리시는 계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기도로 함께해 주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그간의 선교 소식을 전합니다.

1. 영국 노회와의 협력 선교 확장 논의

한국의 신학생을 초청하여 영국 사역 문화의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논의 중입니다. 시골 목회(rural ministry), 도시목회(urban expression), 신개념 목회(Fresh expression) 등 다양한 사회영역에서 목회하는 현장을 경험하고 긴밀한 협력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노회장과 총회 목회담당자와 협력하여 영국과 한국의 소통 등 행정적인 부분을 조율 중입니다. 협력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고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베이비사워



통독 인증서 수여식



송구영신예배



러닝크루

2. 베이비샤워

얼마 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신 새 생명을 축복하는 뜻깊은 베이비샤워 행사를 했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선물과 축하 메시지 하나하나에 담긴 사랑으로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와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보호하심을 함께 믿고 선포하며, 새 생명을 통해 이 땅에 더욱 풍성한 복음의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 말씀으로 채워진 한 해(통독 인증서 수여)

지난해 브리스톨 한인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자 성경을 하루 5장씩 통독하여 녹음하고 카톡방에서 공유하는 방법으로 통독을 진행하였습니다. 1독을 완독한 성도들에게 인증서를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5년도에는 친구약 1독과 신약 3독으로 나뉘어 도전합니다.

4. 새벽을 깨우는 러닝크루, 함께 달리는 은혜의 시간

러닝크루를 조직하여 새벽예배 이후 함께 달리며 몸과 영혼을 깨우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말씀의 약속을 붙들며 서로 격려하는 귀한 교제의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땀 흘리며 단련되고, 영적으로는 서로의 신앙을 나누며 한마음으로 성장해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작은 결단이 하루의 삶을 더욱 힘차고 기쁨으로 채운다는 간증들이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이 작은 새벽 모임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가 영적으로 더 강건해지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1. 2025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꼭 필요한 곳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시야와 지혜의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2. 한국인들과 더불어 영국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배하고 주 안에서 성장하는 건강한 브리스톨 한인교회 되도록
3. 직장과 학업의 변화로 브리스톨을 떠나는 성도들을 파송하면서 허무함을 느끼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역이 되도록

/ 송요한, 이풀잎(송드온) 선교사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을 경험한 뜻깊은 날

2월 8일(토), 다문화선교팀(팀장 허선미 권사)은 중국어예배반 및 필리핀예배공동체와 함께 연합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일부 새로운 성도들도 참석해 다문화 공동체의 성장과 협력을 도모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오한빛 목사의 사도행전 10장 34~3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 후, 다문화선교팀과 중국, 필리핀 집행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다.



주요 안건: 한국어 수업 개설 및 예배 운영 개선

첫 번째로 논의된 사안은 한국어 수업 개설의 필요성이었다. 현재 라비니스(Labinis) 복지재단에서 7개국을 대상으로 무료 한국어 수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주일에는 수업이 열리지 않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주중에 일을 해야 하는 필리핀 성도들은 주일이 유일한 학습 기회이기에, 이 사안을 연동교회 다문화선교팀과 협의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WIN 교회에서 한국어 주일학교 교사 배정을 요청했다. 어린이들에게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한 명의 교사를 배치하고 보호자 한 명이 보조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중국어 예배 운영 개선도 논의되었다. 중국어 예배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이에 따라 예배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문화 선교의 날, 문화 교류의 장으로 기대

올해의 주요 행사 중 하나로 '다문화 선교의 날(Multicultural Mission Team Day)'을 개최하는 안건도 논의되었다. 각 다문화팀이 고유의 문화를 선보이며 연합의 의미를 기념하는 이번 행사는 연동교회 마당과 더게일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각국 전통 의상 퍼레이드, 찬양과 문화 공연, 다문화팀 활동 소개, 사진 전시 및 바자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계획이다.



다문화 속에서도 하나된 공동체

이번 회의는 다문화 공동체의 발전과 하나됨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회의에 참석한 한 성도는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서로를 돕고 격려할 수 있어 감사하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다문화선교팀은 앞으로도 모든 성도가 동등하게 존중받으며, 신앙 안에서 하나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박동진 기자



WeChat ID : df7135
중국어예배반 박점분 목사



Facebook : Abel Raby
Filipino, Pastor Abel

< 영아부 > 부장 : 이현승 집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1	12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아담과 하와)(창3:21)	1월 생일축하(김희은, 최수빈, 최지수, 홍신희)
	19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요(가인과 아벨)(창4:7)	말씀집중주일, 교사 월례회 & 기도회 신입교사 환영(청년부 서호석, 이희원), 영아부 가정심방 설문조사
	26	무지개를 통해 약속하셨어요(노아)(창9:13)	설 세배, 교사헌신예배(오후예배)
2	2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1(아브라함)(창12:2)	2월 생일 축하(김민아), 2월 말씀송 배우기
	9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어요(리브가)(창24:60)	말씀놀이(말씀 오독이 풍선)
	16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2(야곱)(창28:15)	말씀집중주일, 월례회 & 기도회<세계 선교주일>
	23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어요1(요셉)(창50:20)	새친구 환영(윤이담), 2월 22일(토) 새학기 특별 새벽기도회<3.1절 예배>
3	2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눅4:18)	3월 말씀송 배우기(사순절 말씀묵상 스티커북 배부) 신입교사 환영(청년부 김호성)
	9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어요(사순절1(마5:3)	3월 5일(재의 수요일), 사순절 1주, 말씀놀이('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도장놀이), 사순절 말씀 묵상 시작

/ 박윤신 부감



1월, 2월 생일을 맞은 친구들을 축하합니다
(왼쪽부터 홍신희, 최수빈, 김희은, 김민아)



청년부 교사들을 환영합니다
(왼쪽부터:서호석, 이희원, 김보성)



설맞이 세배



영아부에 첫 출석한 이담이를
환영합니다.



말씀놀이('예수님의 사랑_십자가' 도장놀이)

< 유아부 > 부장 : 정윤정 집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1	12	아담과 하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창3:21)	1월 생일파티/반별 사진촬영
	19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창4:7)	대근육활동/공넙기기
	26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 약속하셨습니다(창9:13)	반별 말씀 암송/전통놀이
2	2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창12:2)	2월 생일파티
	9	리브가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어요(창24:60)	대근육활동/공굴리기
	16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셨습니다(창28:15)	풍선사람 만들기
	23	요셉을 통해 약속을 이루셨어요(창50:20)	말씀암송/기차놀이
3	2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눅4:18)	3월 생일파티/사순절워크북 전달
	9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마5:3)	대근육 활동-링걸기

/ 정윤정 부장



민속놀이 투우던지기



공굴리기



생일잔치



풍선사람만들기



기차놀이



새학기 단체사진

< 유치부 > 부장 : 유진희 권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1	12	아담과 하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창3:21)	신년주일 /신입생 환영
	19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창4:7)	1월 생일 잔치
	26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 약속하셨습니다(창9:13)	명절맞이 민속놀이
2	2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창12:2)	2월 생일 잔치
	9	리브가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어요(창24:60)	반별공과
	16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셨습니다(창28:15)	우리가족 초청예배
	23	요셉을 통해 약속을 이루셨어요(창50:20)	말씀 암송 잔치
3	2	하나님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눅4:18a)	3월 생일잔치/사순절워크북 배부
	9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마5:3)	반별공과

/ 최정미 교사



우리도 함께하는 사순절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드렸어요



친구들 생일 축하해요



재미있는 공과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 유년부 > 부장 : 최경희 권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1	12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창 4:7)	반별 공과활동
	19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가인(창 3:21)	반별 공과활동, 찬양대 모집
	26	약속의 무지개(창 9:13)	설 특별 2부 전체활동
2	2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창 12:2)	반별 공과활동, 1-2월 생일잔치, 찬양대 수련회 (8일)
	9	리브가에게 주신 약속(창 24:60)	반별 공과활동, 학부모 초청예배
	16	아담에게 주신 약속(창 28:15)	반별 공과활동, 새학기 특별새벽기도회
	23	요셉을 통해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창 50:20)	반별 공과활동
3	2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눅 4:18상)	반별 공과활동, 3월 생일잔치
	9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마 5:3)	사순절 1, 반별 공과활동

/ 성창원 교사



1-2월 생일잔치



유년부찬양대 수련회



학부모 초청예배



3월 생일잔치

< 초등부 > 부장 : 장미연 권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1	12	추리게임! 그날 에덴동산에서 무슨 일이?(창3:21)	공과활동
	19	사건파일 2025, 범인을 찾아라!(창4:7)	공과활동
	26	노아의 방주 박물관(창9:13)	명절전통놀이활동, 교사헌신예배
2	2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창12:2)	파자마 파티(2월 7, 8일)
	9	리브가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창24:60)	공과활동
	16	야곱 movie, 감동과의 만남(창28:15)	1-2월 생일자 파티
	23	반전에 반전! 요셉을 통해 약속이 이루어지다(창50:20)	새 학기를 위한 특별새벽기도회
3	2	예수님! 구원을 선포하시다(눅4:18상)	놀러가는 토요일 행사(방탈출 카페)
	9	여러분은 복 있습니다(마5:3)	사순절 시작, 모범반 선정

/ 김태정 부감



겨울 수련회로 파자마 파티



모범반으로 선정되었어요



경건한 예배시간



놀러가는 토요일! 친구들과 함께!



공과시간에 집중하는 4학년들

< 어린이부 > 부장 : 윤종훈 안수집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1	12	겨울 어린이부(AWANA 방학) "주인의 위로"(룻 2:13)	찬양, 말씀 / 단체 게임
	19	겨울 어린이부(AWANA 방학)	특별활동 : 레크리에이션(박성우 집사)
	26	겨울 어린이부(AWANA 방학)	특별활동 : 말씀 크래프트(이학주 집사) AWANA 모집 광고
2	2	겨울 어린이부(AWANA 방학) "기다리는 믿음"(룻 3:18)	찬양, 말씀 / 단체 게임 AWANA 모집 1주차
	9	겨울 어린이부(AWANA 방학) "자격을 가진 사람"(룻 4:13)	찬양, 말씀 / 단체 게임 AWANA 모집 2주차(마감)
	16	겨울 어린이부(AWANA 방학) AWANA 학무모 설명회	겨울 영화상영
	23	AWANA 2025년 1학기 개강(~ 6월 1일, 14주) "일꾼으로 살아가기"(딤후 2:15)	개강식, 소그룹 편성(최종 48명) Game / 소그룹(성경암송) / 대그룹(예배/시상)
3	2	AWANA 2주차 "나의 도구"(행 9:15)	Game / 소그룹(성경암송) / 대그룹(예배/시상)
	9	AWANA 3주차 "같이의 가치"(행 9:28)	Game / 소그룹(성경암송) / 대그룹(예배/시상)

/ 윤종훈 부장



어린이부 특별활동 - 위드크래프트



어린이부 특별활동 - 레크리에이션



어와나 1학기 개강



어와나 게임 - 단거리달리기



어와나 게임 - 공주머니



어와나 소그룹 성경암송

〈 중등부 〉 부장 : 정선아 집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1	10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창 3:21)	신입생 환영회
	19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여정(사 43:18-19)	겨울수련회
	26	무지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창 9:8-17)	겨울수련회 설문조사 구경 설날 맞이 웃놀이
2	2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언약(창 12:1-5)	반별 공과 공부, 반 별 이름 경하기 다운찬양팀 모집
	9	조연들이 모여 만든 하나님 나라 이야기(창 24:34-67)	찬양대 모집/ 반별 공과 공부 방송실 : 음향 및 영상 장비 사용법과 구조에 대한 교육
	16	Oh, my God!(창 50:15-21)	찬양팀 교육 / 반별 공과 공부 학생 임원 모임
	23	믿음으로 살아가는 약속의 사람들(창 50:15-21)	찬양팀 교육/ 반별 공과 공부
3	2	오늘 설교 스포: 예수 그리스도(눅 4:16-30)	사순절 활동으로 릴레이 성경 읽기, 녹음 안내 3월 생일 축하 / 공과공부
	9	예수님의 우리들 vs 예수님의 제자들(마 5:1-12)	사순절 활동으로 릴레이 성경 읽기, 녹음 안내 학부모 초청예배를 위한 연극 연습

/ 박성윤 교사



중등부 신입 학생 환영회 모습



다운 찬양팀



설 명절 맞이 웃놀이 장면



겨울수련회-눈썰매 타기



겨울수련회

< 고등부 > 부장 : 유성욱 집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1	10	은혜의 웃을 입혀 주시는 하나님(창3:21)	찬양팀 수련회 11(토)~12일(주일),교회
	19	영원한 사랑(고전13:8~13)	겨울수련회 17(금)~19(토) - 사랑, 그 좁은 길 / 강화수양관
	26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창9:8~17)	명절 민속 놀이 및 음식나눔
2	2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창 12:2)	주보공모전 당선작 시상 (고3, 박혜진), 2월 생일자 축하
	9	리브가에게 주신 약속(창 24:60)	8일(토) 교사월례회 및 수련회 평가회
	16	야곱에게 주신 약속(창 28:15)	선교주일 - 국가와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 트리 만들기
	23	요셉을 통해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창 50:20)	22일(토) 새학기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
3	2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눅 4:18상)	1일(토)블루버튼행사_보드게임, 탁구, 베드민턴
	9	Chill전팔기 : 제자의 삶(마5:1~12)	일(월) 풋살 모임 사색思索:사순절의 40가지 색 (1~4일차)

/ 이승원 부감



풋살모임



블루버튼



명절민속놀이



겨울수련회



주니어앙상블 겨울수련회



주니어앙상블은 매년 여름과 겨울, 총 2회의 '1박 2일' 캠프를 진행합니다. 올해 겨울 캠프는 2월 14일(금) 부터 15일(토)까지 지휘자 김진한 집사와 단장 김선일 집사 주최로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캠프 첫날에는 방영호 안수집사님이 방문하여 개별 아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진단과 맞춤형 레슨을 제공하며, 아이들의 앙상블 연주 실력이 더욱 향상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도 집사님과 함께 3시간의 마라톤 연습을 진행하고 초콜릿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니어앙상블 캠프가 시작되면 대학생 OB 선배들도 함께 참여하여 아이들과 함께 연습하고 보드게임이나 기타

3월 첫째 주 2025년 YBS 음악기개강

과 목	전도폭발
강 사	오함빌 목사
시 간	3월 6일 ~ 5월 22일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내 용	국제전도폭발 1단계 훈련
목 격	전도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고, 전도자료서의 사명을 발견하도록 돕고 또한, 실제 현장에서 실천하며 관계 중심의 전도 훈련을 통해 전도를 삶의 일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양육한다.
대 상	전도에 대한 열정을 품고 계신 성도님
과 목	일대일제자양육 양육자 양성 및 계속 교육
강 사	이진우 목사
시 간	3월 8일 ~ 4월 26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내 용	일대일제자훈련을 가르칠 양육자를 양성하고, 기존 양육자에 대한 계속 교육을 실시한다.
목 격	지나해 수료한 동반자, 기존 양육자로 섬겼으나 쉬고 있는 양육자들을 독려하여 양육자로 양성한다.
대 상	일대일제자훈련을 수료한 동반자 및 기존 양육자
과 목	YD 선교 학교
강 사	위임목사, 박요한, 계대윤, 김환, 박주안 목사
시 간	4월 27일~6월 15일 매 주일 오후 4시
내 용	선교에 대한 이론을 학습하고, 목사님들의 다양한 강의를 통하여 선교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목 격	인도네시아 선교를 가는 팀원들과 선교에 관심이 있는 자들에게 선교적 마인드를 심어주어 양육한다.
대 상	선교에 관심이 있는 성도님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하면서 주니어 앙상블 아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하고 세심하게 아이들의 고민도 들어주면서 매년 함께해주고 있습니다. 연습을 마친 14일(금) 저녁에는 대학로로 걸어가 떡볶이를 먹고 방탈출 게임을 하며 친목의 시간을 보낸 후, 가나의 집에서 다양한 게임을 하며 즐거운 합숙을 마무리했습니다.

주니어앙상블 캠프는 하루 8시간의 긴 연습 시간을 통해 연주의 기쁨뿐만 아니라 합주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팀워크와 협력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또래뿐 아니라 청년이 된 OB 선후배 간의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어 앙상블 단원들이 가장 기다리고 즐거워하는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악기를 통해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주님의 자녀로 자라나 자신들이 받은 사랑과 정성을 나누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김선일 집사(주니어앙상블 단장)

“책바자회+기부” 두 번째 행사



“책바자회+기부” 행사는 미래세대부(부장 여명선 장로) 어린이전도단(단장 양진실 집사) 아름곰방(방장 강희숙 권사)에서 작년 8~9월에 4주 동안 처음으로 진행되었다. 작년 행사 때는 책을 1천 권 정도 기증 받아 800권 정도 판매하였고, 수익금 100만 원은 페루의 안길태·박지원 선교사에게 기부금으로 전달하여 주일학교 학생들의 마음과 사랑을 전했다. 안길태·박지원 선교사는 ‘책’으로 전한 학생들의 마음을 주일학교 교제 중 사영리를 모티브로 한 2년차 첫 번째 공과책인 ‘4일 동안의 이야기’를 제작하는 데 사용하였다.

올해에도 ‘책’으로 전하는 사랑을 이어가기 위해 “책바자회+기부” 행사는 3월 9일(주일)과 23일(주일)에 진행되었다. 올해는 작년에 기증된 책이 200권 정도 남아 있고, 아름곰방에 있는 책 중에서 일부를 판매하기로 하여 책 기증과 책 판매를 2주 동안만 진행하였다. 화창하고 따뜻해진 날씨 덕분에 작년처럼 책이 많이 판매되었다.

아름곰방에서는 새 학년 새 학기에 책바자회를 계획하고,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필요한 문제집과 동화책들을 기증받기 위해 겨울방학 동안 주일학교 각 부서에 미리 홍보를 했다. 작년보다 더 다양한 책들이 기증되었고, 책바자회를 기다리던 학생들과 교인들의 관심과 참여로 이번 책바자회도 풍성하게 진행되었다. 특별히 ‘연동 토요 약기교실’에 자녀를 보내고 계신 교회의 이웃들이 교회까지 찾아오셔서 책바자회에 참여하여 전도의 방법도 되었다. 주일학교 학생들은 “책바자회+기부” 행사를 통해 책의 선순환(善循環)으로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먼 곳에 사는 페루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으며, 교회 이웃들도 교회를 찾아오게 하는 전도의 기회를 만들어냈다.

“책바자회+기부” 행사로 전하는 주님의 사랑이 선교지와 교회 이웃들, 그리고 환경에 계속되기를 소망한다.

/ 양진실 기자

연동 숲속 아기학교

연동 숲속 아기학교는
매년 봄, 가을 학기 5주간 진행됩니다.
다시 오지 않을 소중한 순간,
사랑스런 아가에게 특별한 **신앙의 추억**을 선물하세요!
사랑하고 배우고 자라는 연동 숲속 아기학교,
이웃과 함께 하면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 시간/장소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 오후 12시 30분 /영아부실(가나의 집 3층)
★ 교육대상	생후 18개월 ~ 48개월 유아와 보호자
★ 교육비	5만원
★ 교육내용	자유놀이, 찬양활동, 예배, 신체 및 음악활동, 오감활동, 부모교육

<제7기 연동숲속 아기학교 개강>

3월 29일~4월 26일 매주 토요일 5주간
함께 하실 가정은 QR코드로 신청해주세요



아기학교 신청하기

“김주용 목사에게

봄이 오는 하루에 대해 물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로5가 연동교회의 김주용 위임목사님 하루를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살랑이는 이 계절, 목사님의 소소하지만 특별한 일상을 함께 걸어볼까요?



아침의 시작, 한 잔의 따뜻한 차와 함께

김주용 목사님의 하루는 이른 아침, 따뜻한 차 한잔으로 시작됩니다. “차 한잔을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지요”라며, 관심 있는 책을 펼쳐 독서를 즐기십니다. 신학 서적은 물론, 환경과 생태 관련 책들도 즐겨 읽으시는데요.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설교에도 큰 도움이 돼요”라고 말씀하시며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도심 속 힐링, 산책의 시간

목사님은 산책을 참 좋아하십니다. 사택에서 시작해 도심을 지나 광화문까지 걸으며 종로의 고즈넉한 골목길을 지나 시골 하조. 쉬는 날에도 자연스레 연동교회를 지나게 된다는데요. “이 길을 걸으면 마음이 정리돼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여유를 느끼는 게 중요하죠”라며 산책의 의미를 전하셨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목사님에게 가족과의 시간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입니다. 휴일이면 사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같이 장을 보러 나가기도 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가족과 함께하는 소소한 순간들이 삶의 큰 행복이라고 하시네요.



스포츠를 사랑하는 목사님!

의외로 목사님은 스포츠 애호가이기도 합니다! 축구와 야구 중계를 즐겨보시고, 국가대표 축구선수를 응원하며, 야구의 전설 박찬호 선수의 팬이시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직접 성도들과 풋살 경기를 하기도 하며, 활동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역시 건강한 몸과 마음이 좋은 설교로 이어지는 법이겠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

이렇듯 김주용 목사님의 하루는 단순한 일상 같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배움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함을 찾으며 살아가길 바라며, 그 첫 번째로 만나본, “왓두유쁘리빙”을 마칩니다! 다음호에서 또 만나요~!  / 박동진 기자

*“왓두유쁘리빙”(What do you for living: 너는 뭐하며 사니?)은 교인들의 교회 밖 일상을 따라가 보는 코너입니다. 새롭게 기획된 이 코너에 교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청년부에서 새내기
셀 리더로 섬기고 있는 송하람입니다.
현재 저는 모션그래픽 디자이너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션그래픽 디자이너 송하람

*모션그래픽 디자이너

모션그래픽이란 컴퓨터 프로그램(애프터 이펙트 또는 C4D)을 사용해서 그림(그래픽이미지)에 움직이는 효과를 넣어 영상을 만드는 작업을 뜻합니다. 이름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모션그래픽은 우리 주변에서 매우 흔히 보실 수 있습니다. 영화관에서 상영 전에 나오는 안내 영상이나 TV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나오는 짧은 영상, 회사나 제품의 홍보 영상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 나의 직업 소명 도전기

어릴 적 도화지를 접어 작은 책을 만들어 동네 서점에 몰래 놓고 온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창작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즐거워하는 것에 제법 큰 행복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미술로 진로를 정하고 예술고등학교와 예술대학교에 진학하여 회화를 전공했습니다. 입시 기간을 포함하여 제법 긴 시간 동안 그림을 그리다 보니, 정적인 이미지를 그리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생생하게 전달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겨 자연스럽게 모션그래픽에 흥미를 느끼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션그래픽은 단순히 이미지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전달할지, 주인공은 누구로 설정할지, 관객의 시선을 어떻게 사로잡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빈 화면에서 주인공과 배경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해줍니다. 작업을 할 때마다 애정을 담고, 완성된 결과물도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창작을 이어가던 중 학원에서 모션그래픽학과 강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을 만나며 각자의 속도와 방식에 맞춰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제게 주어진 역할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조금 느린 학생들도 함께 이끌어 나가며, 비난이 있더라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의 앞날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디자인에 대한 소명은 교회에서의 섬김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연동교회 청년부에서 포스터와 카드뉴스를 제작하며 작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보다 깊이 있는 창작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회사에 새로 들어가고 싶기도 하고, 도로 한복판의 대형 전광판에 제 영상이 재생되는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욕심이 앞설 때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저는 현재 퇴사 이후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어려움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 들어가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고, 혼자 작업을 하면 고독과 경제적인 부담이 따릅니다. 결국 어디에서도 완전한 만족을 찾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고,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인정, 돈, 명예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음을 깨닫고,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 두려운 저에게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허락하셔서 한 달에 수십 명의 학생들을 만나게 하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퇴사 후 생계를 고민할 때, 학생이 연결해준 클라이언트를 통해 외주 작업을 하며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순간에도 변함없이 곁을 지켜주는 가족과 동역자를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예술을 하는 후배들은 창작과 진로의 과정에서 고독과 막막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결국 단련의 과정이며, 그 안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보길 바랍니다. 불안이 아닌 감사와 기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광고, 타이틀 시퀀스, 포스터, 팸플릿 등 다양한 그래픽디자인 외주 작업이 필요하시다면 ☎010-9214-6601로 연락해주세요. 또한 이 분야를 배우고 싶거나 다양한 디자인 프로그램의 기초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도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과 진행: 송재호 기자



*송하람 포트폴리오 및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ramrn_d



연동교회에서 평안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주님의 딸이 되었어요



정승주 성도(연희홍계 구역)

2022년에 새신자로 등록하신 정승주 성도를 교인
들께 소개합니다.

Q.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본인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어린시절에 친구를 따라 가끔 가보았던 교회는 참
즐거웠던 곳이었습니다. 늘 바쁘셨던 부모님보다 더
따뜻하고 친절하신 선생님이 계셨고 또래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부르던 찬양도 좋았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엔 그렇게 심심하면 놀러가듯 교회를 잠깐씩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
사오며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를 믿사오니..' 사도신경을 외웠던 기억은 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헛갈려 했고 성령님은 무슨 뜻
인지 모른 채 거기서 멈춰졌습니다.

그 시절 이후 저는 그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로 살
았던 것 같습니다. 십 대, 이십 대, 삼십 대를 거치
면서 마음 한편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가지
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점점 멀어진 삶을 살게 되
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린시절 뜻도 모르고 막연하게 외웠던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묵상합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당시 당최 알 수 없었던 이 구절의 뜻을 알게 되었고 삼위일
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어떤 것을 바라실까 생각합니다. 죄인인 나를 택
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긍휼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Q. 연동교회에 나오게 된 계기를 알려주세요.

연동교회 성도인 지인 분께 권면을 받아 연동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연동교회에서 처음 예배드릴 때 눈물이 쏙
아졌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던 저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며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담스럽지 않게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
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Q. 새신자 입장에서 연동교회 목회자나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아직 모르는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 다행히 회사에서도 제 주변에 교인들이 여럿 계셔서 믿음의 고민과 종교적인 문제로 궁금증을 해소하며 대화할 때가 있습니다. 또 가끔씩 유튜브로 CBS 채널을 보거나 간증 영상들을 보기도 합니다. 간증 영상들처럼 저마다 자신의 스토리를 갖고 교회에 나오는 듯했습니다.

그러한 사연을 가지고서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서 항상 좋은 말씀과 축복으로 서로를 감싸주시고 치유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들의 거룩함에 항상 감사합니다. 찬양대의 찬양에 또한 감사합니다. 교인 분들의 상냥함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Q.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게 주신 분깃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며 어떤 낙심과 절망에도 다시 일어나 기도와 찬송으로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성경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으며 지식에 그치지 않는 신앙인으로 믿음의 열매에 따라 서로 사랑하는 일에 노력하는 신앙인이고 싶습니다.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어떤 것일까 생각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Q. 연동교인들과 나누고픈 기도 제목을 알고 싶습니다.

믿음이 없는 가족들과 친구와 이웃에게 저를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제게 능력을 부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길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Q. 현재 하시는 일과 미래 계획 또는 교회에 관심 분야를 나눠주세요.

저는 자영업업을 하는 남편의 사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남편으로 인해 다방면으로 관심을 가질 형편이 되지 못하는 점이 아쉽습니다. 주일예배와 설교말씀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뻐 들으시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여기 함께하신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 몽글몽글 구름처럼 좋았던 기분을 경험했습니다. 기회가 되는대로 찬양 예배에 참석하고 싶습니다.

Q.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나눠주세요.

새신자이자 초신자나 다름없던 무지한 저에게 새신자 교육, 세례 교육, 일대일양육을 해주시고 도움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도 연동교회에 정착할 수 있게 따뜻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인사 나눠 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도해 주신 이후에도 항상 흔들려 깨워 주시고 이제는 믿음의 선배로 형제로 함께 힘이 되어주시는 전도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지체로 하나되어 사랑합니다. 받은 만큼 흘려 보내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진행: 진상협 기자, 사진: 김세현 집사

연동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2월 16일(주일) 2부예배 시간에 장학위원회(위원장 강철민 장로)는 2025년도 연동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들에게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선정된 장학생은 대학원생 5명, 대학생 20명, 장신대 이치연 장학생 2명, 고등학생 2명 등 총 29명으로, 전년 대비 5명이 증가했다. 장학금 금액은 총 58,362,000원으로 2월 19일(수) 장학생들에게 지급되었다. 경신고와 경신여고의 경우 3월 28일(금)까지 두 학교로부터 장학생을 추천 받아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김원장 안수집사(장학위원회 서기)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의 사랑에 감사하며"



전종민 성도
(비청년부)

저는 유치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 전종민입니다. 지난 12년간 주일학교에서 예배드리고, 올해 졸업하여 하이청년부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 긴 시간을 되돌아보며, 저를 항상 밝고 기쁘게 맞아 주셨던 선생님들과 사역자분들 덕분에 신앙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받은 은혜를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어 유치부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한서대학교 항공운항학과에 합격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훗날 공군 조종사가 되어, 창공을 배경으로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는 비전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출이 따르는 학과 특성상 경제적 부담이 있었으나, 연동교회와 장학재단의 장학금 지원 덕분에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덜어진 재정 걱정만큼 학업에 집중하고 신앙에 열중하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유치부 섬김을 통해 신앙적으로 더욱 성숙한 연동교회의 청년이 되겠습니다. 받은 사랑을 나누어, 미래에는 더 많은 사람에게 베푸는 장학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유진 전도사
(유년부)

"받은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연동교회 유년부 지도 전도사이자 2024년 2월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합창지휘를 공부하고 있는 신유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 신학과 교회 음악을 공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배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연동교회 장학금을 받게 되어 재정적 지원을 넘어 제 사역과 비전에 대한 확신을 더욱 굳건히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과 음악을 공부하며 경제적 어려움과 학업의 부담이 있었지만, 장학금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 길을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연동교회는 저에게 큰 사랑을 주는 공동체로, 예배의 감격과 교회의 사랑은 제 신앙과 사역의 방향을 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며 신앙 공동체의 사랑과 신뢰를 다시 한 번 경험하게 되었고, 그 사랑을 헌신으로 되돌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을 통해 신앙을 견고히 하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장학금 지원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연동 장학생 명단〉

NO	장학기금명	성명	학교	금액(원)
1	권사회	조준용	장로회신학대학원	2,000,000
2	권사회	장판규	장로회신학대학원	2,000,000
3	권사회	조창우	장로회신학대학원	2,000,000
4	김영순 이선인	김옥자	장로회신학대학원	2,000,000
5	김성태 윤선헌	신유진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2,000,000
6	선유 / 동해	강신희	순천향대학교 경제금융학과	2,000,000
7	세중	김민준	경동대학교 호텔조리학과	2,000,000
8	정은옥	김예나	한림대학교 글로벌학부	2,000,000
9	유민화	김지형	우송대학교 한국조리학과	2,000,000
10	건실 / 윤암순원	김진원	서경대학교 무용예술학부	2,000,000
11	장문식 문정	김찬미	국민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2,000,000
12	박순자 / 여명선 그루터기	김하경	국민대학교 기계공학과	2,000,000
13	신우 / 소천	김한결	연세대학교 자율융합계열학부	2,000,000
14	최우암	남윤태	서울과학기술대 전기정보공학과	2,000,000
15	방정현 / 김병웅 박은화	박지민	대진대학교 미술문화계열학부	2,000,000
16	연동	박하영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	2,000,000
17	연동	유애정	호서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2,000,000
18	지소라	이승민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2,000,000
19	윤영	이희원	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2,000,000
20	연동	전종민	한서대학교 항공운항학과	2,000,000
21	원정	전하임	성균관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2,000,000
22	성은	정윤성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2,000,000
23	연동	정지민	차의과학대학교	2,000,000
24	안수집사회 / 연동	황보예원	동덕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0,000
25	김영순 이선인	류경민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0,000
1	희연 장학금	김연후	중앙고등학교	800,000
2		최가은	성신여자고등학교	800,000
1	이지연 장학금	최은총	장로회신학대학원	3,381,000
2		문희연	장로회신학대학원	3,381,000

바다의 파도가 되어



조창우 전도사
(비청년부)

때때로 바다가 보고 싶을 때, 저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파도가 보고 싶다." 지평선 너머 끝 없이 펼쳐진 파도.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부드럽게 출렁이는 그 물결은 바람이 지나간 흔적이지요. 바람과 파도의 관계는 어쩌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주님의 뜻에 따라 흘러가는 존재입니다.

한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파도가 없는 바다는 어떨까?"

그런 바다는 더 이상 바다라 불리기 어렵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지요. 파도가 없는 바다는 흐르지 않는 물, 경화되지 않는 물, 서서히 고여 썩어가는 물이 되어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신앙은 정체되기 쉽고, 생명력을 잃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연동교회를 향해 나아갈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맡긴 파도였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바람을 의심하는 파도는 없습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나아가듯, 저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때로는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처럼 제 앞에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바위에 부딪힌다고 파도가 멈추는 법은 없습니다. 부딪혔다가 다시 흐르고, 흘러졌다가 다시 모이듯 제 삶도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흘러갈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바람을 따라 흐르는 파도처럼,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전하는 파도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조창우 전도사는 2월 2일(주일) 비청년부 지도 및 하눌찬양팀(예비일새벽기도회) 인도자로 부임했습니다.)

남다른 신입기자를 소개합니다!



3월호 '연못골'에서 연동교인들께 첫 인사를 드리는 남다른 신입기자는 현재 하이청년부에서 미디어팀을 섬기고 있는 청년입니다. 앞으로 '연못골' 기자로서 기사와 미디어를 통해 교회에 연동 청년들을 이어주고 '연못골'을 알리는 사역에 함께할 예정입니다. 남다른 기자는 "연못골 기자로 합류되어서 설레고 기대"되며,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연동교회 성도들, 특히 청년들의 모습들을 잘 담아내는 기자"가 되겠다고 소감과 다짐을 밝혔습니다. 교인들께서도 남다른 기자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현주 목사님, 반갑습니다!”



‘연못골’은 1월 19일(주일) 부임한 이현주 목사님을 하늘 맑게 빛나던 2월 어느 토요일 오후에 더개일홀에서 만나보았습니다. 이현주 목사님은 연동교회 찬양팀(하늘, 다울 찬양팀, 트리니티밴드) 지도와 주일 3부예배, 수요기도회를 비롯한 찬양예배 때 찬양인도를 위해 부임하셨습니다.

연동교회에 오신 소감, 부탁드립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연동교회는 역사가 깊고 건강한 교회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특히 교역자들 사이에서 더 그렇게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연동교회를 너무 좋게, 아름답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저는 참 기뻐했습니다. 부임해서 성도님들을 실제 보면서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늘 마주치면 격려해주시고 딱봉도 날려주시고 따뜻하게 표현해주시더라고요. ‘연동교회에 와서 참 행복하다.’ 요즘 그런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가족을 소개해주세요.

가족으로는 올해 5월이 되면 결혼 11년차가 되는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도 목사로 섬기고 있는데(동대문에 위치한 동신교회 김경원 목사), 부모님들끼리 먼저 아시는 사이였기에 중학생 때부터 정말 친한 친구로 자라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소명을 발견했을 때는 중보자로, 동지로 함께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발견하고 그걸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기에 “나한테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만큼 너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도 크고 소중하다” 표현해줄 정도로 어려운 고비마다 저를 격려해 주고 지지해 주어 너무 감사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유치원생 때 기독교인이 되신 부모님께서는 신앙을 늦게 가지셨음에도 굉장히 열심히 교회와 목회자들을 섬기셨어요. 그 때문인지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께서 장래희망에 대해 물으셨을 때 “목사님입니다!”라고 대답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찬송가 한번 불러봐라” 하셔서 우렁차게 불렀던 기억이 나요. 그 이후로 자연스럽

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을 늘 허락하셨고 대학교 졸업반(화학공학 전공) 때 찬양 인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훌륭한 찬양인도자와 예배자들을 배출한 학교가 미국에 있다고 해서 예배와 찬양 인도를 공부하러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웅기장이선교단 사역도 그때 시작했고, 현재도 알토 파트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또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예배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도전을 받고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대원 입학 을 위해 귀국했고, 신대원 공부(교역학 석사)를 마친 뒤에는 일반대학원에서 설교학과 예배학 공부(신학석사)를 더 마쳤습니다. 이제는 “찬양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내 목숨을 바칠 수 있겠습니다” 고백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저의 목회 철학은 누군가를 업어주는, 어떤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의 자루에 쓸어담아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업어 주다 보면 그 사람의 슬픔이나 기쁨의 호흡이 등을 통해서 온몸으로 전해지잖아요. 저는 목회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성도님들을 온몸으로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하고 격려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신 이유라고 생각하며, 저의 목회 철학입니다. 감사하게도 찬양 인도라는 자리가 그런 목회 철학을 꽃 피워내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매주 감사로 자리에 서고 있습니다.

연동교회에는 찬양담당 목회자로 오셨는데요, 사역에 대해 알려주세요.

찬양팀(하늘, 다올 찬양팀, 트리니티밴드) 지도와 주일 3부예배, 수요기도회를 비롯한 특별예배와 찬양예배 때 찬양 인도를 맡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으로 매주 찬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부예배 트리니티밴드 찬양을 준비할 때면 위임목사님 설교 말씀을 더 묵상하고 연구해서 그 설교의 한 꼭지 와 맞추어서 찬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대가 다르고 각자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기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걸 더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 세대가 찬양으로 함께 소통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찬양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동교회와 교인들께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다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들로 다 같이 설 때,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 가까이에 있게 될 테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힘으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터뷰와 정리: 박현미 편집장

“많은 사랑 받고 갑니다”



연동교회에 부임한 후 5년 4개월이 정말 화살처럼 지나갔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교회에서 사역하는 설렘과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성도들을 품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하고 싶은 마음이 넘쳤는데 성도님들께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동교회에 있는 동안 많은 추억을 쌓고 떠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 생각나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신앙생활하며 격려했던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들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며 그분들과 나누었던 신앙의 추억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19의 기억입니다. 부임하자마자 성도들의 얼굴과 이름을 익히기도 전에 온라인으로 먼저 만났던 기억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아직 돌아오지 못한 분들은 신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좋은 성도들과의 만남입니다. 교회는 성도와 하나님이 만나고, 성도와 성도가 만나는 공동체입니다. 정말 순수하고 열정이 있고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연동의 성도들을 만난 것이 저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습니다. 대한민국 교회에서 가장 착한 성도들일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경공부입니다. 매 학기마다 드보라의 방을 가득 채웠던 성도들의 말씀을 향한 열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모든 학생들을 기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여행입니다. 연동교회에 와서 강화수양관으로, 충남 예산 저의 고향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성지순례로 함께 떠났던 많은 여행의 여정들과 함께했던 분들이 기억납니다.

저는 이제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송정교회로 4월 첫 주 주일부터 부임하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도록, 시대를 앞서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헌신하고 싶습니다. 연동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정말 많은 사랑만 받고 떠납니다. 그 사랑을 다 갚지는 못하고 떠나지만 송정교회 성도들에게 갚으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요한 목사

*박요한 목사님은 3월 30일(주일) 오후예배 설교를 마지막으로 연동교회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송정교회(광진구 소재) 담임으로 부임하십니다.

2024년 결산 감사 실시

감사위원회(위원장 이정민 장로)는 1월 19일(주일)부터 2월 16일(주일) 오전 11시-오후 3시까지 5주간 가나의 집 위즈덤하우스에서 2024년 결산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감사의 기간은 2024년도 전체(1월 1일~12월 31일)이며 대상은 제직회 각 부서 및 자치기관이다.

이번 감사 대상 업무는 대상기간 중 회계자료 및 2023년 결산 감사 지적사항 이행 여부이다. 각 부서는 이를 위해 회계장부(교회 양식 또는 자체 엑셀)와 증빙서류, 통장 및 지적사항 이행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 박윤신 기자



교사헌신예배



1월 26일(주일) 오후예배 시간에 교사헌신예배가 드려졌다. 예배는 김태정 집사(초등부 부감)의 인도로 시작되어 교사연합 찬양팀과 함께 부른 '주님의 사랑' 등의 은혜로운 찬양 시간이 있었다. 최경희 권사(유년부 부감)의 대표 기도 후 정선아 집사(중등부 부장)가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봉독하였다. 이날 강사로 오신 신형섭 목사(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 교수)는 '하나님의 시선과 말씀의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다. 말씀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교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완전하심이 드러나고, 연동교회 청소년 주일학교의 모든 걸음이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바라고 축복하는 내용이었다. 이어서 정호연 안수집사(주일학교 교감)의 부장단 소개가 있었고, 모든 교사들이 교사 선서를 제창한 후 '내일을 보리' 찬양으로 특송을 함께 부르면서 교사로서의 사명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동교회 청소년 주일학교의 모든 교사들이 학생들을 통해 내일을 보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한다. / 양진실 기자

은퇴자들과 함께해 더 즐거웠던 ‘온제직간친회’



1월 23일(목) 오후 5시 30분부터 제직원들을 대상으로 온제직간친회가 진행되었다. 5시 30분부터 1시간여 오병이어의 집에서는 권사회(회장 박문숙 권사)와 여전도회가 준비한 뷔페 식사가 마련되었고, 사무처 앞 접수대에서는 3,4여전도 회원들이 제직원들을 맞아 이름표와 초청권을 챙겨주었다. 6시 30분부터는 본당에서 영성훈련부(부장 최은주 장로) 주관으로 예배를 드렸다. 김주용 위임목사의 “은혜의 풍성함”(엡1:7-10) 설교 뒤에 신임 집사 소개와 인사가 있었다. 예배 후에는 각 제직부서별로 흠어져 부서 소개 및 부서장, 팀장, 부서원들의 인사를 겸한 모임이 있었고, 7시 40분부터 베들레헴예배실에서 친교부(부장 김이순 장로) 주관으로 전체 친교행사가 진행되었다.

친교행사는 이진우 목사의 찬양인도로 시작해 민흥기 안수집사(친교행사팀장) 사회로, 사회자를 이겨라(가위 바위 보 게임), 이구동성 게임, 신임 집사 소개 및 인간 율놀이 베네핏 게임(눈 가리고 머리 위로 별장식 담기), 3인 릴레이(탁구공 넣기, 컵 쌓기, 공기 놀이), 이벤트 게임을 포함한 연동 인간 율놀이(인간 말, 말 잡기, 뽕망치 때리기) 등의 게임과 게임 사이사이 경품 추첨이 진행되어 모두에게 색다른 즐거움과 기쁨을 주었다.

제직간친회가 끝난 뒤 민흥기 안수집사는 올해 친교행사는 “참석 범위를 은퇴 제직까지 확대하였고, 참석자들이 골로루 참여할 수 있는 게임과 중복 없이 한 분도 빈 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한 경품”에 주안점을 두었고, 무엇보다 “교회 표어(하나님께 소망을 두라)와 데바레카 성경통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전했다. 이날 참석한 한 권사는 “은퇴자들과 함께해서 소외감 없는 간친회가 된 것 같아 더 즐거웠고, 율놀이로 1등해서 너무 기쁘다”고 소감을 말하며, “더 많은 제직들의 참석을 위해 평일 저녁 대신 주말이나 주일 오후에 열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해주었다. / 박현미 편집장



〈제직간친회를 위한 봉헌자〉(성별, 직분 생략, 가나다순)

*현금: 안수집사회, 권사회, 1, 2, 3 남선교회, 1, 2, 3, 4 여전도회, 강철민, 김대진, 김병웅, 김성영, 김이순, 김진호, 김찬진, 김학수, 김형기, 류관식, 박종서, 박은화, 방영민, 송상경, 심현숙, 안창익, 여명선, 이규성, 이정민, 이호진, 장동철, 최은주, 홍영표, 59년 모임

*물품: 김수연1, 김웅중, 박재천, 송대현, 최은주, 한기석

소그룹 ‘연동탁구교실’ 개강



시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12시
장소: 가나의 집 지하 2층 열림홀
문의: 이수진 은퇴장로(010-8783-7617)

1월 11일(토) 오전 10시 소그룹 모임인 연동탁구교실이 가나의 집 지하 2층 열림홀에서 개강하였다. 연동탁구교실은 이수진 은퇴장로가 중심이 되어 문화선교부(부장 김성영 장로) 예산을 보조 받아 당근마켓을 통해 탁구대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시작되었다. 몇 분의 회원들이 매주 금요일 오후에 모여 열림홀에 탁구대를 설치해 두면 토요일 오전 10시에 회원들이 모여 2시간여 탁구와 함께 주말을 활기차게 보내고 있다. 현재 등록 회원 43명에 회비 회원 30여 명으로, 매주 20명 넘는 회원이 탁구교실에 참여하고 있는데, 입소문을 타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이젠 5대의 탁구대로는 부족하다는 느낌”이라는 이수진 은퇴장로는 “탁구교실이 교회의 부흥과 새 신자 전도에도 기여하는 동아리가 되길 바란다”는 말씀을 전해주셨다. 탁구대는 수요일 실버아카데미 탁구반에서도 사용하고 있는데, 김용기 공로안수집사가 실버아카데미와 연동탁구교실에서 코치로 수고해주고 있어 초보자라도 탁구 치기를 원하는 분은 누구든 환영이다. / 박현미 편집장

제3남선교회 친교 볼링대회



2월 15(토) 제3남선교회(회장 유기정 집사)는 회원들 간의 친목을 위해 볼링 모임을 가졌다. 부부 4쌍을 포함 총 13명의 회원과 준회원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서로의 실력에 대한 사전 정보가 전혀 없이 3명의 조장을 통해 무작위로 팀을 편성해서 게임을 하다 보니 예상치 못한 상황도 생기고 오히려 더욱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특히 부부가 한 팀이 되어 게임을 하다 보니 서로 응원을 하며 파이팅을 외치는 가운데 부부애가 더욱 강해지는 아주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행사였다. 실력의 차

이를 떠나서 팀원들이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며 비록 다른 팀이라도 좋은 경기 모습을 보이면 같이 기뻐해주고 하이파이브를 외치는 가운데 신앙의 공동체로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게임을 마치고 함께 식사 후 나눔 상품도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였다. 조 1등과 개인 1등상(이만희 안수집사)과 감투상(원철 집사)을 수여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 유기정 집사(제3남선교회 회장)

제직원 헌신예배 및 세미나



2월 2일(주일) 오후 예배는 제직원 세미나로 드렸다. 오길환 안수집사(제직회 회계)의 예배 인도로 찬송가 218장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를 부르고 박현철 안수집사(부회계) 기도 후 장진경 권사(부회계)가 고린도후서 2:15, 3:3 절 말씀을 봉독했다. 강사 박재필 목사(장신대 교수)가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모든 제직원은 제직원 헌신서약(대표 이규성 안수집사)을 했다. ‘예수 열망의 소망’ 찬양 후 김주용 위임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제직원 세미나에서 박재필 목사는 주제 말씀에 맞춰 ‘볼수록 맛있는 교회, 갈수록 맛있는 교회’되자고 강연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거든 네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라(Parker J. Palmer).’ 즉, 신앙인 동시에 연동교회 교인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 답을 볼 수 있다. 골 보기 좋은 교인이 되자!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다니고 싶어야 한다. 제직의 삶과 얼굴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느낌을 나타내야 한다. 전도 하려면 복음 전하는 것을 넘어 제직의 모습에서 살아나는 향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 ‘사람은 외모에 그 사람됨이 나타나는 데 지혜로운 사람은 얼굴에 그것이 나타난다.’, ‘웃차림, 웃는 모습, 걸음걸이는 그의 인품을 드러낸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메시지, 편지가 되자.

목회/전도/설교란 ‘종교라는 귀부인의 손을 이끌고 친구, 친지를 비롯 사람들이 모인 시장으로 데려가 그(녀)를 소개하는 것과 같다(Eugene H. Peterson).’ 제직의 약속 방법 등 기본 예절과 식사 예절을 알려 줬다. / 송재호 기자

여전도회 헌신예배

1월 19일(주일)은 여전도회주일로 여전도회 연합사업을 위해 1부예배 때는 김경미 권사(제3여 회장), 2부예배 때는 문춘애 권사(제2여 회장)가 특별봉헌 기도를 했다. 오후 여전도회 헌신예배는 장의숙 집사(제4여 회장)의 인도로 박혜영 권사(제1여 회장)가 지도를, 조현정 집사(제4여 서기)가 성경봉독(고전13:1-13)을 한 후 여전도찬양대가 '하나님의 약속'을 찬양했다. 영아부 지도목사인 표경림 목사가 '그 사랑 안에서 소망하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한 후 김은희3 집사(제4여 부회장)의 여전도회 회의록 및 사업보고에 이어 김주용 위임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 이지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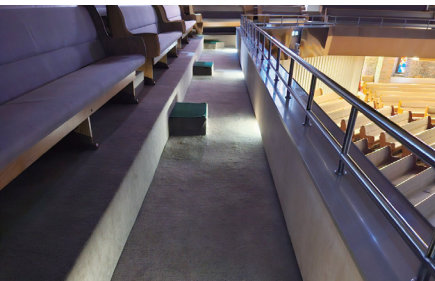


세계선교위원회 헌신예배



2월 16일(주일) 오후예배는 세계선교위원회(위원장 최은주 장로)의 헌신예배로 드렸다. 최은주 장로(위원장)의 인도로 김이순 장로(부위원장)의 기도, 이은영2 집사(회계)의 성경봉독(창12:1-3) 후 박요한 목사가 '선교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윤종훈 안수집사(총무)의 사업보고에 이어 세계선교위원들의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특송 후 김주용 위임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오전에는 교회마당에서 전교인 차대접을 했다. / 이지원 기자

본당 2층 난간 및 계단 간접조명 공사



3월 6일(목)과 13일(목) 본당 2층 낮은 난간으로 인한 낙상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보다 난간 높이를 올리는 공사를 했다. 또한 2층 복도에 튀어나온 간이 계단을 인지 못해 넘어지는 사고가 종종 있어왔기에 사고 방지를 위한 간접조명 공사를 했다. / 김종은 기자

연동신협 제47차 정기총회

2월 16일(주일) 오후 4시 10분 본당에서 연동신협 제 47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제1부 기념식에서는 김주용 위임목사의 개회 기도 및 이사장 인사말씀, 연혁, 시상으로 이어져 어린이 저축상으로 이예은, 우수 조합원으로 심석환 조합원이 수상했다. 제2부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결산 결과보고 등으로 조합원의 결의를 받았으며 출자배당률은 4.5% 지급하기로 결의했다.

당 조합의 경영실태평가는 12개 항목 모두 매년 종합 등급 1등급으로 연속하여 우수 조합으로 자리 매김하

였다. 폐회 후 늦은 시간까지 자리해주신 조합원을 위하여 정성껏 준비한 180개의 상품으로 행운권 추첨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총회를 마친 뒤 조합원 기념품으로 식탁용 재래맛김과 빵을 나누어 드렸다. 이번 47차 총회는 재적 조합원 2,604명 중 참석 218명, 위임 120명으로 총 338명이 참석하였다. / 정영희 권사(연동신협 상임이사)



종로시찰 연합 일일부흥회



2월 19일(수) 오후 7시 2025 종로시찰 연합 일일부흥회가 본교회 본당에서 있었다. 다음 찬양팀의 찬양으로 시작된 예배는 서진석 목사(종로시찰장/승동교회)의 예배 인도로 김용익 목사(영락농인교회)의 기도

교회), 나라를 위한 합심기도는 황영태 목사(안동교회), 교회를 위한 합심기도는 이광재 목사(종로시찰 서기/동송교회)가 기도했다. 조건희 목사(서울노회 전 노회장/예능교회)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날 봉헌금은 밥생명공동체(허재석 목사)에 전액 기부했다. 밥생명 공동체는故윤영일 목사(연동교회 출석)가 1999년 대학로에서 대학로선교회의 이름으로 시작되었으며, 지금은 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기금과 동참하는 몇몇 교회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종은 기자

에 이어 성경봉독(행 4:1-20)은 이상학 목사(새문안교회)가 맡았다. 게일찬양대의 찬양 후 김병삼 목사(만나교회)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이란 제목으로 말씀선포가 있었다. 봉헌시간에는 종로시찰회 목사일동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고, 봉헌기도는 유봉진 장로(종로시찰회계/예능

새가족부 상반기 세미나

2월 22일(토) 새가족부(부장 심현숙 장로)는 베들레헴에 배실에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한 새가족의 양육과 훈련을 위해 새롭게 개편된 양육프로그램으로 세미나를 가졌다. 섬김이 50명이 참석하여 1부는 평신도 중심의 교회와 섬김의 자세를 주제로 4주간의 교육내용에 대해 김환 목사가 교육을 진행하였다. 2부는 한 분의 새가족이라도 실족하지 않고 연동인으로 잘 섬겨줄 수 있도록 새가족 응대에 대해 심현숙 장로가 상세한 사항까지 설명하였다. / 권은경 권사(새가족부 차장)



새 학기 예비일 특별새벽기도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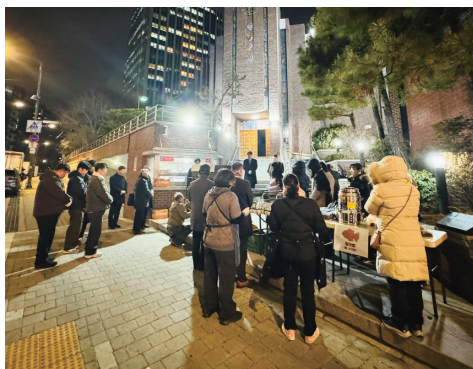
2월 22일(토) 본당에서 새 학년 새 학기를 맞는 청소년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드리는 예비일 특별새벽기도회가 있었다. 2월 말이지만 한겨울 같은 추위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데리고 예비일 특별새벽기도회에 참석했다. 하늘찬양팀의 찬양, 남미열 권사의 대표기도 후에 청소년주일학교 학생 및 교사들은 '작은 제자'라는 특송을 부르며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위있고 우아하게 주의 향기와 모습을 드러내기로 결단하였다. 김주용 위임목사는 '귀감의 신앙'(빌 3:17-21)이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은 본과 귀감이 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전하였다. 기도회 시간에는 자녀축복기도 제목으로 모든 성도들이 다함께 기도를 하였고, 기도회를 마친 후에 김주용 위임목사와 부목사께서 한 가정씩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를 해주었다. 축복기도는 많은 가족들이 참석하여 2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축복기도를 마친 자녀들은 교회에서 함께 식사하며 친교의 시간도 가졌다. 새 학년 새 학기를 맞는 연동교회 청소년주일학교 모든 자녀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길 축복하며 기도한다. / 양진실 기자

구역지도자 헌신예배



3월 2일(주일) 오후예배는 구역지도자 헌신예배로 드려졌다. 목양위원회 부위원장인 심현숙 장로의 인도 아래, 김경희2 권사(목양위원회 서기)의 대표기도, 김경자 권사(목양위원회 회계)의 성경봉독이 있었다. 김환 목사는 '식사를 합시다'(눅 14:15-24)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모든 구역들이 하나님의 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숨이 살아 숨쉬기를 권면하였다. 이어서 모든 구역지도자들은 김영애 집사(목양위원회 부회계)의 인도로 헌신서약을 하며 구역지도자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감사히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회가 요구하는 8가지 표준을 지킬 것을 결단하였다. / 양진실 기자

교회 앞에서 차와 간식 나눔 행사



국내선교부(부장 이호진 장로) 직장인예배팀(팀장 강석주 협동장로)과 청소년주일학교(교장 여명선 장로) 어린이전도단(단장 양진실 집사)이 함께 3월 4일(화) 새벽기도회 후 출근하는 직장인과 새 학기를 맞아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 교회 앞에서 커피와 봉어빵, 군고구마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수요직장인예배의 재개를 위해 교회 및 직장인예배를 홍보하고, 효제초교 앞에서 청소년주일학교 사역자와 교사들은 전도지와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상품을 나눠주었다. 작년 처음 실시할 때는 커피와 간식을 나눌 때 거절하는

분이 많았지만, 올해는 적극적으로 간식 나눔을 원하는 분이 많았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 봉사자들은 추위에 떨어야 했지만 나눔을 받는 직장인들과 아이들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모습이었다. 매주 했으면 하는 바람을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시는 직장인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 김종은 기자

재의 수요일

3월 5일(수)은 '재의 수요일' 수요 기도회로 모였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음,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이다. 사순절 시작 첫 날은 베옷을 입고 재(灰,Ash)를 뿌리고 뒤집어쓰는 행위를 통해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재의 수요일'이라고 불린다. 찬양과 기도, 말씀이 함께한 기도회는 특별한 순서를 준비하였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모인 교역자들과 교인들 대부분은 검은색 옷을 입고 경건한 마음으로 '재 예식'에 참여하였다. 오르간(곡: 슬픔의 성모/ 연주자:김지리 권사)이 연주되는 동안 김주용 위임목사를 비롯하여 3명의 교역자들이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창3:19)"고 말하며 손등에 재로 십자가를 그려주었다. 이 시간을 통해 '너도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물음에 작은 신음으로 답하고 부활로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였다. '재 예식'이 끝난 후 김주용 위임목사의 '예수의 경건으로 연단하라(딤후 4:7-8)'라는 제목의 말씀이 있었다. 말씀 후 게일찬양대 솔리스트 이정희, 이에 일 성도의 찬양과 침묵 기도가 이어진 후 합심기도와 김주용 위임목사의 축도로 기도회를 마무리하였다.

/ 박윤신 기자



연동실버아카데미 개강

3월 5일(수) 오전 10시 연동실버아카데미(원장 김남순 권사) 봄학기가 개강되었다. 박점분 지도목사를 비롯한 17명의 봉사자들은 이번 학기에 등록한 57명의 수강생들을 섬기며 앞으로 3개월 동안 실버아카데미 봄학기를 운영하게 된다. 개설된 특별활동반은 노래와 즐겁게(교사 김이선, 장은옥 집사), 건강체조(교사 전중희 안수집사), 몸 다스리기(교사 김지영1 집사), 탁구(교사 김용기 공로안수집사), 꽃 색연필화(교사 김정혜 권사), 수채화(교사 송정옥 은퇴협동권사) 등 총 6개 과목이다. 수강생들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모여 박점분 지도목사와 함께 예배 후 각 교실로 흩어져 원하는 특별활동반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 수업이 끝나면 오병이어의 집에서 점심식사를 드신 후 원하는 분들은 417호실에서 황순진 권사에게 머리손질(이미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매 학기마다 한 차례씩 소풍 등 야외활동이 준비되어 있다. 실버아카데미를 개강하며 김남순 원장은 수강생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웃고, 배워가는 소중한 순간들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개강소감을 밝혔다./ 박현미 편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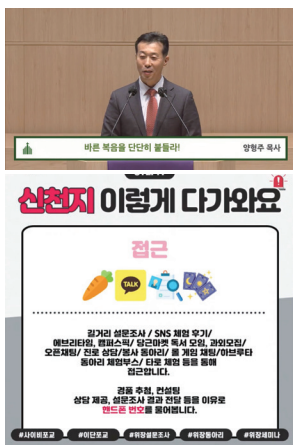
남선교회 헌신예배



3월 9일(주일) 오후예배는 남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렸다. 제1남선교회 회장 김성영 장로의 인도로 예배를 시작해 찬송가 505장(온 세상 위하여)을 부른 뒤 안수집사회 회장 김찬진 안수집사의 기도과 제4남선교회 회장 육경민 집사의 말씀 봉독(고전1:21)이 있었다. 연동교회 출신으로 연동교회 부목사(2017.01-2022.06)를 거쳐 서울 중국동소재 새영광교회 위임목사로 부임한 이근영 목사가 "미련한 복음" 제목으로 '기도와 선교'의 중요성과 자기 기준의 판단을 유보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미련한 사랑'을 통해 불의를 변화시키는 온전함을 강조하는 말씀을 전했다. 이후 남선교회 회원 일동의 특송이 있었다.

/ 진상협 기자

이단예방과 대처를 위한 세미나



3월 16일(주일) 오후에는 평신도교육부(부장 강사겸 장로) 이단사이비대책팀(팀장 정금실 권사) 주관으로 이단예방과 대처를 위한 세미나로 드러졌다. 강사겸 장로의 인도로 하늘찬양팀 찬양과 장동철 안수집사(평신도교육부 차장)의 기도, 정금실 권사의 성경봉독(갈1:6-8) 후에 양형주 목사(대전 도안교회)가 “바른 복음을 단단히 붙들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양형주牧사는 전 세계를 무대로 활발한 포교를 펼치고 있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등 이단들이 20대 젊은이들뿐 아니라 교인들 사이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깊숙이 침투해 있음에 경각의 종을 울려주었다.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 영에 현혹되지 말고 깨어 하나님의 복음을 단단히 붙들고 가야 함을 설파하였다. 설교 뒤에 찬양과 알림, 김주용 위임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 박희미 편집장

연못골찬양대 수련회

3월 15일(토) 연못골찬양대(대장 양연화 권사)와 가족, 29명은 '찬양대원이 가져야 할 바른 마음 자세' 및 'CCM 정확하게 부르기' 라는 주제로 강화수양관으로 수련회를 다녀왔다. 박영태 목사(테너 솔리스트)의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란 귀한 설교 말씀에 이어 '비 준비하시니', '우릴 결코 놓지 않네', '그 날'이란 CCM을 간증과 함께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 번 감사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찬양으로 에너지를 모두 소진한 후 '봄 내음 가득 품은 향긋한 축곡'에 '냉이무침' 야외에서 빠질 수 없는 '삼겹살 바비큐'로 맛있는 점심식사를 한 후 2부 친교타임! '명랑운동회'로 동심으로 돌아가 오랜만에 실컷 웃는 행복찬 시간을 가졌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 박영란 집사(연못골찬양대 부총무)



3, 4월 행사안내

월	일	행사(예정)
3	2일(주일)	구역지도자헌신예배, 제직회(오후예배 후, 본당)
	5일(수)	여전도회 월례회(오전 11시, 본당), 재의 수요일
	6일(목)	목요기도회(오후 7시, 베들레헴예배실)
	8일(토)	러브릿지-ON(溫)(담당:당회원)
	9일(주일)	남선교회주일, 남선교회헌신예배(오후예배시)
	16일(주일)	이단예방과 대처를 위한 세미나(오후예배시)
	22일(토)	러브릿지-ON(溫)(담당:HI청년부)
	26일(수)	권사회 월례회(오후 2시, 드보라의 방)
	27일(목)	은퇴권사회 월례회(오전 11시, 베들레헴예배실)
	28일(금)	교구전체모임(오전 10시 30분, 본당)
	29일(토)	음악찬양부 수련회(오전 10시, 본당)
	30일(주일)	음악찬양부 헌신예배(오후예배시)
4	3일(목)	목요기도회
	5일(토)	한식합동추모예배(오전 11시, 연동동산)
	12일(토)	러브릿지-ON(溫)(담당:안수집사회)
	13일(주일)	성례주일, 종려주일
	14일(월) - 19일(토)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19일(토)	러브릿지-ON(溫)(담당:HI청년부)
	20일(주일)	부활주일 , 부활절 축하음악예배(오후예배시)
	23일(수)	권사회 월례회(오후 2시, 드보라의 방)
	24일(목)	은퇴권사회 월례회(오전 11시, 베들레헴예배실)
	25일(금)	교구전체모임(오전 10시 30분, 본당)
	27일(주일)	항존직선거 (장로 1차선거), 당회(오후 3시, 위즈덤하우스)
	30일(수)	새참음악회

소그룹 '토브(팬플룻)' 개강

2월 8일(토) 오전 9시 30분에 415호에서 팬플룻 소그룹 '토브'(총무 최은숙 집사) 2기가 위임목사님의 지도로 첫 모임을 시작하였다. '토브' 1기는 2024년 팬플룻의 음색에 매력을 느끼고 연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2명으로 시작되었으며,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고 싶은 마음을 담아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의 히브리어 '토브'를 소그룹명으로 정하게 되었다. '토브' 2기는 4명의 새 멤버와 함께 하고 있으며, 앞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더운 좋은 소그룹으로 성장해 가기를 소망한다. / 최은숙 집사(토브 총무)



시간: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장소: 415호 찬양대실

참여문의: 최은숙 집사(010-7499-5422)

소그룹 '소리터' 개강

3월 8일(토) 소그룹 소리터가 개강하였다. 소리터는 찬양과 가요를 함께 배우고 부르는 소그룹이다. 현재 연동 쌍쌍부터 장년부까지 10여 명이 함께 하고 있으며 노래에 자신이 없는 분들도 부르고 싶었던 나만의 찬양과 가요를 배우고 부르며 즐거워하고 있다.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기가 부끄러운 분들도 자신 있게 노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함께하시기를 바란다. 이와 함께 예비일 새벽 기도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한다. / 박윤신 기자



시간: 매주 토요일 오전 7시(예비일새벽기도회 후)

장소: 312호 찬양대실

참여문의: 허선미 권사(010-2368-9187)

교회 첫 출석 아기

2월 23일 주일 3부 예배



윤이담 아기 (남, 2024년 11월 15일생)

윤병익 성도, 최동하 집사의 아들/2교구 아일구역

*최영익 은퇴장로, 전영혜 권사의 외손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우리 하송이 이담아!!

엄마 아빠는 앞으로 하나님과 우리 가족이 함께할 시간들이 너무나 기대돼! 우리 같이 행복하고 신나게 믿음 안에서 살아보자!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 우리 이담이,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해!♡

새가족 소개



권은영, 홍성기(5교구 한신2구역)



김성덕(5교구 일산구역)



김소형, 서범석(2교구 행당금호구역)



김정원(2교구 잠원반포구역)



김진아, 김정열(5교구 쌍쌍연동9구역)



김현숙(3교구 한신1구역)



송정아(1교구 명륜연건구역)



안성찬, 강은성(1교구 마포용산구역)



이혁제(4교구 동작관악구역)



최정욱(1교구 상계중계구역)

연동복지재단 (상임이사 최현수 장로)



1,2월 러브릿지“溫(ON)” - “차가운 겨울의 끝자락, 따뜻한 손길”

▶ 1월 25일(토), 2월 15일(토) 매달 한 차례씩의 러브릿지온 사역을 잘 마무리하였다. 3월부터는 매월 두 차례, 총 80가구를 대상으로 나눔을 한다. 둘째 주는 교회 내 각 부서별로, 넷째 주는 청년부 주관으로 진행한다. 이 사역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기에 교회와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이번에도 따뜻한 나눔을 함께해주셔서 감사하다.

연동어린이집(원장 조주은 집사)

“제 3회 수료식 및 진급식”

2월 17일(화)에는 연동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맞는 세 번째 수료식 및 진급식이 있었다. 연동어린이집에서 보낸 1년을 되돌아보며 한 해를 추억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히 자란 아이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고, 우리 아이들을 돌보며 가르친 선생님들도 모두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동지역아동센터(센터장 김수미)



“정약용 유적지 체험학습”

2월 21일(금) 아이들과 함께 남양주시 조안면에 있는 딸기농장 및 다산정약용유적지 체험학습을 다녀왔다. 이번 나들이는 제철을 맞은 달콤한 유기농 딸기 체험과 역사 속 위대한 실학자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먼저 방문한 딸기농장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싱싱한 딸기를 수확하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 농부들의 지도 아래 빨갭게 익은 딸기를 조심스레 따면서 수확의 기쁨을 느꼈고, 현장에서 맛본 딸기의 달콤함은 아이들의 얼굴에 미소를 가득 담아주었다. 각자 정성스레 딴 딸기를 한 팩씩 포장하여 가족들과 나눌 수 있게 선물도 준비했다. 이어서 찾은 다산정약용 유적지에서는 조선 후기 최고의 실학자였던 다산 정약용 선생의 발자취를 돌아보았다. 아이들은 다산 선생의 삶과 업적을 배우며 역사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이론적인 교육을 넘어 직접 유적지를 둘러보며 역사적 현장을 체험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신협 현황

(1월 31일 현재) 총 조합원수 : 2,604명(단위:천원)

부채 및 자본금	출 자 금	예탁 및 적금	적 립 금	기타 부채	합 계
	5,417,551	38,679,748	2,221,127	993,292	47,311,718
유동 자산	총 대출금	투 자 금	현 금	제 세 금	합 계
	33,770,194	671,734	75,821	12,793,969	47,311,718

(2월 28일 현재) 총 조합원수 : 2,604명(단위:천원)

부채 및 자본금	출 자 금	예탁 및 적금	적 립 금	기타 부채	합 계
	5,421,499	39,392,047	2,017,519	1,001,703	47,832,768
유동 자산	총 대출금	투 자 금	현 금	제 세 금	합 계
	32,431,730	2,053,629	89,830	13,257,579	47,832,768

목양위원회

■결혼식

- 이유진(이석원 집사, 김남희 님 딸/명일하남구역) 양과 이승우(이정수 님, 정양선 님 아들) 군 - 3월 1일(토) 오전 10시 30분, 순천 아모르웨딩컨벤션 4층 그랜드 볼룸홀
- 신진호(신용식 안수집사, 임영애 권사 아들/이화구역) 군과 김향기(정미경 권사 딸) 양 - 3월 1일(토) 오후 4시 50분 SW컨벤션센터 11층
- 김병수(김기정 집사, 김은선 집사 아들/삼선구역) 군과 윤하영(박애숙 님 딸) 양 - 3월 15일(토) 오후 1시 본 교회당
- 강의정(강기혁 집사, 양희정 집사 아들/도곡역삼구역) 군과 김지현(김선복 안수집사, 양정임 장로 딸) 양 - 3월 22일(토) 오후 1시 본 교회당

■장례식

- 강신자 타교권사(이해순 공로권사 시누이, 강윤희 집사, 강석주 협동장로 고모, 박기웅 집사 처고모/압구정청담삼성구역) 별세, 1월 20일 남양주 선산에 모심
- 이성숙 타교집사(최경진 타교집사 모친, 목경수 집사 장모/과천안산구역) 별세, 2월 4일 국립서울현충원에 모심
- 양성진 목사(양금실 집사 부친, 김정현 집사 장인/송파구역) 별세, 2월 14일 자연애수에 모심
- 이희규 타교집사(이인실 성도 모친/응암역촌구역) 별세, 3월 4일 포천 선산에 모심

2025년 연동요람 배부

2월 9일(주일) 사무처에서 ‘2025년 연동요람’을 배부했다. 자원절약과 연동교회 스마트요람(모바일앱)을 적극 활용하길 권장하며 코로나 이후 회복된 교인수를 고려하여 500부만 인쇄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요람수령증을 작성하도록 했다. 올해도 예년과 같이 과년도 요람 및 구역일람표는 사무처로 가져오면 일괄 폐기한다. 올해 요람 표지는 김한 목사가 디자인해 주셨다. / 김종은 기자





(이름:

연락처:

소속:

)

12-1월호 당첨자 축하드립니다

(5,000원 상품권)



김성준(초등부)-7854



김한울(초등부)-9253



이만희(서초방배)-9110



조선영(명일하남)-7541

나경남(이화구역) - 7844, 성열숙(낙산구역)- 0647, 윤문희(성북2구역)- 9147, 김효민(신내구역)- 6032,
강현서(초등부)- 1533, 진예현(초등부)- 0117

*2-3월호 연동컬러링에 색칠해 사무처 혹은 연못골 이메일(ydpc3000@gmail.com)로 보내주세요. 추첨해 상품권(5000원)을 드립니다. 색칠하기가 돋보인 컬러링은 다음 호에 실립니다. 주일학교 학생은 소속 부서를 꼭 적어주세요.



연못골 제 57권 619호

- 창간일 1969년 1월 26일
- 발행일 2025년 3월 23일
- 발행인 김주용 편집인 김성영 지도목사 박요한 편집장 박현미
총무 진상협 원고접수 ydpc3000@gmail.com
기자 고현수 김중은 박동진 박윤신 송재호 양진실 이경아 이지원 임재철
신입 남다운
-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연동교회
(우편번호 03128)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37 전화 (02)3676-3000, (02)763-7244
위임목사실 (02)3673-5100 팩시밀리 (02) 745-5905 인터넷 <http://www.ydpc.org>
● 상담실 (02)766-0675 연동복지재단 (02) 3673-0086 강화수양관 (032)932-2929

사진으로 보는 연동



행복한 연동인

당신이 있어 연동이 행복합니다



봄이 온다.
강철 추위와 감감한 어둠 뚫고
하하하 호호호 까르르
장한 웃음 달고 기어코 봄은 온다.

이 봄에
죽음 이기신
주님 오신다.



2-3월호(619호)